지금 우리의 율곡 2

배워서 사람 되기

지금 우리의 율곡 2
배워서 사람 되기

2023년 11월 30일 처음 펴냄

편역자 이종란
발행인 우관제
발행처 파주문화원
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전화/전송 031-941-2425 / 031-941-2511
전자우편 pajucc@naver.com

© 파주문화원, 2023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980667-5-6 04990
979-11-980667-0-1 (세트)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간행하였습니다
(사업명: 율곡학 콘텐츠 개발과 국제적 확산 사업).

지금 우리의 율곡 2

배워서 사람 되기

이종란 편역

파주문화원

발간사

파주는 율곡의 본향이며 기호 유학의 본산입니다. 율곡 선생은 16세기 조선의 사대 학자이며 정치가셨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선생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율곡 선생의 말씀이 울림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 군사력 · 과학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각종 국제 대회에서 한국인이 큰 상을 탈 때 스스로 문화 민족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국내 문제와 각종 갈등 현장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과연 그 자부심에 맞게 어울리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까닭은 현대 한국인의 평균적 삶의 모습에서 문화 민족다운 점을 찾기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근원적으로 우리 문화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을 내 삶 속에 내면화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현대에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일차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정신 유산이 거의 한문이나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해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여 생활에 적용하고, 때로는 외국인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서는 방대한 문화유산 가운데서 율곡 선생의 문집에 실려 있는 글을 뽑아 먼저 우리말로 옮기고, 또 확장을 위해 영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누구나 갖고 다니기 편한 책자로,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편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선생의 문헌 자체도 방대하여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본서는 우선 그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초학자가 뜻을 세운다는 '입지'에 이어 '배움'을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배움이란 단순한 이론체계나 지식을 익히는 일만이 아닙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에서 몸소 실천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야 사회나 국가가 바르게 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배움이 잘못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혼란도 그런 배움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배움이란 무엇이며 그 목적과 목표 그리고 내용과 방법이 어떤지 이 작은 책자를 통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학문과 사상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원하는 독자들께서는 권말에 [부록]으로 첨부한 "배움의 철학적 근거와 배경"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책상 위나 사무실이나 승용차 안이나 사업장에 늘 가까이 두고 틈틈이 읽어본다면, 마음의 양식과 거울이 되어 훨씬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열심히 배워 실천하시기를 빕니다.

2023. 9.

파주문화원 원장 우관제

차례

발간사 5

01 왜 배움에 힘써야 할까? 11
Why should you strive to learn?

02 어떤 사람이 되려고 배우는가? 27
What kind of person do you learn to be?

03 무엇을 배워야 하나? 43
What should you learn?

04 어떻게 배워야 할까? 83
How should you learn?

05 어떤 자세로 배울까? 127
With what attitudes should you learn?

06 배움의 효과는 무엇인가? 151
What are the effects of learning?

[부록] 배움의 철학적 근거와 배경 169

편역자 후기 185

01

왜 배움에 힘써야 할까?

Why should you strive to learn?

이 장은 배움의 목적과 까닭 또는 그 중요성과 관련된다. 배움이야말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人生斯世
인 생 사 세

◁격몽요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

After a person is born into this world, there is no way to become a true person without learning.

*生: 태어나다 *斯: 이, 이것
*世: 세상 *非: 아니다
*學問: 학문, 배우고 물음 *無: 없다
*以: 방법, 도구, 수단 등을 나타내는 어조사
*爲: 되다 *人: 사람

해설

『격몽요결』「서문」의 첫 문장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 학문이라는 뜻이다. 학문이란 한자 말 그대로 풀이하면 배우고 묻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겉모습이 사람이어도 행동이 사람답지 않으면 금수(禽獸)로 취급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도리를 배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유학자들은 공자(孔子) 같은 분도 배워서 성인이 되었다고 자주 말한다. 배움은 이렇게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 不知道
옥 불 탁 불 성 기 인 불 학 부 지 도 부 지 도
無以爲人
무 이 위 인

◁증홍생설(贈洪甥說)▷

옥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룰 수 없고,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모르며, 도리를 모르면 사람이 될 수 없다.

If you don't polish jade, you can't make things, if you don't learn, you don't know the Way, and if you don't know the Way, you can't be a human being.

*玉: 옥
*不: ~하지 않다
*琢: 쪼다, 다듬다
*成: 이루다
*器: 그릇
*學: 배우다
*知: 알다
*道: 길, 도리
*無: 없다
*爲: 되다
*以: 방법, 도구, 수단 등을 나타내는 어조사

해설

배움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인용한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道"는 『예기』, 「학기」(學記)의 내용으로 배움의 중요성과 까닭을 강조하는 글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다.

사람이 되는 방법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선 도리를 아는 일이다. 도리로 옮긴 道의 원래 뜻은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발로 직접 밟고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 규범인 윤리, 도덕 그리고 여러 규칙을 말한다.

따라서 그것을 모르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있다.

士而不學者 是皆不憚爲禽獸者也
사 이 불 학 자 시 개 불 탄 위 금 수 자 야

◁증홍생설▷

선비이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금수가 됨을 꺼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Those who are scholars but have not learned are all people who have not minded becoming animals.

*士: 선비 *不: ~하지 않다
*而: 순접과 역접의 접속사로서 여기서는 역접
*學: 배우다 *者: 사람, ~것
*是: 이, ~이다 *憚: 꺼리다
*爲: 되다 *禽獸: 날짐승과 길짐승
*也: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어조다, ~이다

해설

선비로 옮긴 사(士)는 고대 전문 관료 집단으로, 문사(文士)와 무사(武士)가 있었다. 공자의 아버지도 하급 무사였다. 사 위의 계급은 대부(大夫)이다.

조선에서는 보통 지배계층을 사대부라 부르며, 그냥 사(士) 또는 사족(士族)이라 일컫기도 했다. 신분이 세습되었고 과거시험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거나 학행과 덕행이 높으면 벼슬에 발탁되기도 했다. 그래서 사대부는 대체로 학자이면서 관료이고 정치가였다.

선생의 본뜻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배워야 인간이 된다는 말이다. 이 말에 근거해 보면, 지배층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는 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人之身體 不可變短爲長 惟有心志
인 지 신 체 불 가 변 단 위 장 유 유 심 지
則可以變愚爲智
즉 가 이 변 우 위 지

◁격몽요결▷

사람의 작은 키를 크게 만들 수는 없으나, 오직 마음에 품은 뜻만은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바꿀 수 있다.

You cannot change your stature from short to tall, but only your will of the heart can turn your foolishness into wisdom.

*之: ~의
*不可: ~할 수 없다
*短: 짧다, 키가 작다
*惟: 오직
*心志: 마음의 뜻
*可以: ~할 수 있다
*智: 지혜롭다
*身體: 몸
*變: 바꾸다
*長: 길다, 키가 크다
*有: ~가지고 있다
*則: ~는, 곧
*愚: 어리석다
*爲: 만들다

해설

타고난 사람의 외모나 체격 따위는 후천적으로 바꿀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훌륭하게 바꿀 수 있다는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준수한 외모는 삶에 장점이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보다도 삶을 좌우하는 더 큰 요인은 마음이다. 모든 성공과 실패는 그 씨앗이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외모는 늙을수록 볼품없이 변해가지만, 마음만은 갈고 닦아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 그래서 사람이 훌륭하다고 평가되는 요인은 외모에 있지 않고 마음씨에 있다. 그런 마음씨를 갖게 하는 활동이 바로 배움이다.

道非高遠 人自不行 萬善備我 不待他求
도비고원 인자불행 만선비아 부대타구

◁학교모범▷

길은 높고 멀리 있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 않는다. 온갖 선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다.

Though the Way is not high and far, people do not go by themselves. All kinds of good are inherent to me, so there is no need to look elsewhere.

*道: 길, 진리
*非: ~아니다, ~않다
*高: 높다
*遠: 멀다, 심원하다
*自: 스스로
*行: 가다, 실천하다
*善: 선, 착하다
*備: 갖추다
*我: 나
*他: 다른
*待: 기다리다, 不待는 '~을 기다리지 않는다'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
*求: 구하다, 찾다

해설

인간의 도리와 진리는 높거나 먼 데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데,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배움의 목적이 행간에 숨어 있다.

"온갖 선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말은 맹자의 성선설의 가르침을 따랐다. 선생 학문의 목적은 그 가르침을 따라 타고난 착한 본성을 잘 발휘하는 데 있다. 배움이란 그 본성을 올바르게 발휘하도록 갈고 닦는 일이다.

굳이 맹자의 성선설을 따르지 않아도 선을 실천하는 일은 나에게 달려 있으니, 어디서 찾을 것인가?

若動於貧窶 而不能行義 則焉用學問爲哉
약 동 어 빈 구 이 불 능 행 의 즉 언 용 학 문 위 재

◁학교모범▷

만약 가난에 마음이 흔들려 의로움을 실천할 수 없다면, 학문을 어디에 쓰겠는가?

If you cannot practice righteousness because your heart is shaken by poverty, what will you use your learning for?

*若: 만약
*動: 움직이다, 흔들리다
*於: ~에
*貧窶: 가난
*而: 문장을 잇는 접속사
*能: ~할 수 있다
*行: 행하다, 실천하다
*義: 의, 의로움
*則: 若~則의 형태로 가정문의 주절을 이끄는 접속사
*焉: 어디, 어찌
*用: 쓰다
*爲: ~하다
*哉: 감탄이나 의문문 뒤에 붙는 어조사

해설

가난이 배움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의를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없음을 말했다.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못하는 원인을 대개 가난이나 생계 탓으로 돌린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그런 말을 자주 한 것 같다. 그래서야 아무리 많이 배운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날도 각자의 잘못된 행위를 가난이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름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學成 則爲上者 擧而用之 蓋仕者 爲人
학 성 즉 위 상 자 거 이 용 지 개 사 자 위 인
非爲己也
비 위 기 야

◁격몽요결▷

배움이 이루어지면, 윗사람이 된 자는 그를 등용한다. 대개 벼슬살이는 남을 위한 일이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다.

When one's learning is accomplished, those who become superiors pick up and hire him. In general, government jobs are for others, not for oneself.

*成: 이루다
*則: ~하면, ~하다
*爲: 되다, 위하다
*上: 위, 윗자리
*者: 사람
*擧: 들다
*而: 문장 접속의 어조사
*用: 쓰다
*之: 학문이 이루어진 사람을 받는 대명사
*蓋: 대개
*仕: 벼슬하다
*人: 남
*非: 아니다
*己: 자기
*也: 종결의 어조사

해설

배움의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하였다.

옛날에는 학행이 뛰어난 사람이 조정에 발탁되어 벼슬을 하였다. 그 벼슬 자체가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남 곧 백성을 위하는 데 있었다는 설명이다.

요즘 세상에는 배우는 목적이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 옛날을 기준으로 그것을 탓할 수도 없는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공직은 자기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자리이다. 공직을 이용해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배운 것이 아니다.

02

어떤 사람이 되려고 배우는가?

What kind of person do you learn to be?

이 장은 배움의 목표에 관련된 내용으로 입지 사상에 해당한다. 이미 『뜻을 세워라』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소개한다.

初學 先須立志 必以聖人自期
초 학 선 수 입 지 필 이 성 인 자 기

◁격몽요결▷

처음 배우는 사람은 먼저 뜻을 세움에 있어 반드시 성인이 될 것을 스스로 기약해야 한다.

A beginning student most of all, when you set your will, must promise yourself that you will become a saint.

*初學: 처음 배우는 사람 *先: 먼저
*須: ~해야 한다 *立志: 뜻을 세우다
*以: 수단, 방법, 자격 등을 나타내는 어조사
*聖人: 성인 *自期: 스스로 기약하다

해설

성인 되기에 뜻을 세우라고 하였다.

이미 선생의 입지 사상과 관련된 발언을 『뜻을 세워라』에서 소개했다. 여기서는 배움의 목표를 환기하는 데에 필요하여 다시 소환하였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성인이 되는 일이 배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성인이란 인간으로서 도달하기 어렵고 감히 접근하기 힘든 높은 수준의 인물이 아니다. 뒤의 '배움의 내용'에서 소개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평범한 일에서 배움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성인이 못 되는 까닭은 그런 배움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런 배움에 게으르기 때문이다.

先須大其志 以聖人爲準則 一毫不及聖人
선 수 대 기 지 이 성 인 위 준 칙 일 호 불 급 성 인
則吾事未了
즉 오 사 미 료

◁자경문(自警文)▷

먼저 나의 뜻을 크게 하여 성인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하면 내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First of all, I have to make my will bigger and take the saint as the standard. If I will not be able to reach the saint even in the slightest, my work will not be finished.

*先: 먼저 *須: ~해야 한다

*大: 크게 하다 *其: 그 (대명사)

*以~爲~: ~을 ~로 삼다 *準則: 표준

*一毫: 아주 작은 것, 조금이라도

*不及: 미치지(도달하지) 못하다

*則(즉): 조건절과 주절을 잇는 어조사

*未: (아직) ~가 아니다 *了: 끝내다, 완료하다

해설

선생이 스스로 경계하는 글에서 성인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말이다. 이 내용도 이 시리즈의 책에서 소개하였다.

일반 상식대로 성인을 바라본다면, 어떤 종교의 교조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선생의 철학에서는 성인이 될 가능성을 누구나 타고났다고 여긴다.

그러함에도 사실 보통 사람에게는 성인이 되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서 아예 처음부터 성인과 거리가 멀다. 만약 선생의 다짐처럼 성인이 되려고 마음먹고 배운다면, 설사 성인은 못되어도 현인은 될 수 있다.

純乎天理 而得誠之全者 聖人也
순 호 천 리 이 득 성 지 전 자 성 인 야

◁잡저3▷

천리에 순수하여 성실의 온전함을 얻은 사람은 성인이다.

A person who attains the integrity of sincerity by being pure according to the heavenly Principles is a saint.

*純: 순수하다
*天理: 하늘의 이치
*誠: 성실, 정성
*全: 온전하다
*聖: 성스럽다
*乎: ~에
*得: 얻다
*之: ~의
*者: 사람, ~것

해설

성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말하였다.

전통적으로 천리는 자연의 이치이자 인간의 도리이다. 인간의 도리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도이다. 성실, 곧 '성'(誠)의 철학적 의미는 『중용』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로서, 보통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으로 풀이한다. 곧 자연의 질서가 거짓이 없듯이 사람도 거짓 없는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실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천리를 잘 따르고 온전히 거짓 없이 사는 사람은 성인이라는 뜻이다. 말의 뜻만 보면 성인 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實其一端 而得誠之偏者 賢者也
실 기 일 단 이 득 성 지 편 자 현 자 야

◁잡저3▷

그 하나의 실마리를 실행하여 성실의 한쪽을 얻은 사람은 현인이다.

A person who executed that one clue and gained a side of sincerity is a wise man.

*實: 실행하다
*端: 실마리
*誠: 정성, 성실
*偏: 치우치다, 한쪽
*者: 사람, ~것
*其: 그(대명사)
*得: 얻다
*之: ~의
*賢: 현명하다, 어진 사람
*也: 종결의 어조사

해설

배움의 목표가 성인이면 아주 좋지만, 대신 현자도 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글은 바로 앞 「잡저 3」의 글을 이어 말한 부분으로 '그 하나의 실마리'란 천리의 실마리를 말한다.

성인은 천리 전체를 실천하는 사람이지만, 현자는 그 절반이나 한쪽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성인이 너무 큰 목표라면 현자를 배움의 목표로 삼아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통 성인과 현인을 합쳐 우리는 성현(聖賢)이라 부른다. 성인이라는 말이 너무 무겁지만, 역사에는 성현으로 불리는 분들은 꽤 있다.

天地 聖人之準則 而聖人 衆人之準則也
천지 성인지준칙 이성인 중인지준칙야

◁답성호원(答成浩原)▷

하늘과 땅은 성인의 본보기이요, 성인은 보통 사람의 본보기이다.

Heaven and earth are examples of saints, and saints are examples of ordinary people.

*天地: 하늘과 땅
*之: ~의
*準則: 준칙, 본보기, 표준
*而: 접속사
*衆人: 여러 사람, 보통 사람
*也: 종결의 어조사

해설

보통 사람의 표준이나 본보기가 성인이라는 말로서, 배움의 목표가 성인이라는 뜻이다.

표준 또는 본보기란 사람이 그것을 모방하거나 따라야 하는 대상이다. 보통 사람의 그것이 성인이라면, 성인의 표준은 하늘과 땅이다. 이것은 네 계절의 변화와 밤낮의 바뀜이 어김 없이 돌아가는 성실 그 자체를 성인이 잘 구현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수양의 목표는 성실함에 도달하는 일인데, 성인은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성인을 본보기로 삼아 성실함에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이 성실하여 거짓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이 만든 사회는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일 것이다. 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많다면, 불행한 세상일 것이다.

既誠於爲學 則必須矯治氣質之偏
기 성 어 위 학 즉 필 수 교 치 기 질 지 편
以復本然之性
이 복 본 연 지 성

◁성학집요▷

이미 학문하는 일에 성실하였다면, 반드시 기질의 치우침을 바로잡아 본래의 성품을 회복해야 한다.

If you have already been sincere in your learning, you must correct the bias in your temperament and restore your original nature.

*旣: 이미
*誠: 성실, 성실하다
*於: ~에
*爲學: 학문을 하다
*則: 조건절과 주절을 잇는 접속사
*必須: 반드시 ~해야 한다
*矯: 바로잡다
*治: 다스리다, 바로잡다
*氣質: 기와 질 또는 기질
*之: ~의
*偏: 치우침
*以: ~해서, ~함으로써
*復: 회복하다
*本然: 본래 그러하다
*性: 성품, 본성

해설

배움의 중간 목표 가운데 하나가 좋지 못한 기질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 내용은 선생의 기질 변화론인 '교기질'(矯氣質)을 언급한 곳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본연지성(本然之性)은 사람이 타고난 착한 본래의 성품인데, 이 본성을 잘 발휘하려면, 그것을 덮어 방해하는 기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것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수양을 통하여 좋지 못한 성격을 교정하는 일이다.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이것도 배움의 중간 목표가 되어야 한다.

君子之學 誠篤而已 任重道遠 不進則退
군 자 지 학 성 독 이 이 임 중 도 원 부 진 즉 퇴

◁성학집요▷

군자의 배움은 성실과 독실함뿐이다. 임무는 무겁고 길은 머니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

The only learning of the Superior Man is sincerity and seriousness. The task is heavy, the road is long, and if you don't advance, you will regress.

*君子: 덕을 이룬 사람
*誠: 성실, 정성
*篤: 독실하다, 돈독하다
*而已: ~일뿐이다
*任: 맡은 일
*重: 무겁다
*道: 길
*遠: 멀다
*進: 나아가다
*退: 물러나다
*則: 조건절과 주절을 잇는 어조사

해설

군자의 배움이 오로지 성실함과 독실함뿐이라는 점을 말했다.

군자는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이다. 그 배움의 목표가 성실함이고 독실함은 배움의 태도이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유학에서 공부와 수양의 목표는 성실하게 되는 일이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 그것이면 족하다.

그런데 "임무는 무겁고 길은 멀다"라는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선생이 이 말을 덧붙인 뜻은 성실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배우고 또 배워 독실하게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03

무엇을 배워야 하나?

What should you learn?

이 장은 배움의 내용이다. 그 내용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거나 지켜야 하는 일이다. 『격몽요결』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所謂學問者 亦非異常別件物事也
소 위 학 문 자 역 비 이 상 별 건 물 사 야

◁격몽요결▷

이른바 학문이란 것도 평상시와 다른 별건의 일이 아니다.

The so-called study is also not a separate business that is different from the usual.

*所謂: 이른바
*者: ~ 것
*非: 아니다
*別: 따로, 달리
*物事: 사물
*學問: 학문, 배우고 물음
*亦: 또한
*異常: 평상시와 다른
*件: 사건, 물건
*也: 종결의 어조사

해설

배움이 평상시의 일에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학문이라면 흔히 심오한 고담준론(高談峻論)만을 일컫는 데 대한 오해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이다. 이 뒤에 이어지는 글을 보면 학문의 내용이 일상생활과 관련됨을 말하고 있다. 이 글에 이어서 소개하겠다.

여기서 유학 전통의 학문관을 읽을 수 있다. 뒤에서 소개할 배움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 뿌리는 공자의 학문관에서 비롯하며, 서양의 그것과도 다르고 심지어 같은 동아시아의 불교사상이나 노자와 장자의 도가사상과도 다르다.

爲父當慈 爲子當孝
위 부 당 자 위 자 당 효

◁격몽요결▷

부모가 되어서는 마땅히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효도하여야 한다.

As parents, you should love your sons and daughters, and as sons and daughters, you should devote filial piety to your parents.

*爲: 되다
*當: 마땅히 ~해야 한다
*子: 아들, 자식
*父: 아버지
*慈: 자애, 사랑
*孝: 효도

해설

『격몽요결』「서문」에서 "이른바 학문이란 것도 평상시와 다른 별건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에 이어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 말 다음에는 신하 · 부부 · 형제 · 젊은이 · 친구가 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 이어진다. 이는 배움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진 심오한 내용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오륜과 같은 규범을 잘 실천하는 일이다. 오륜의 덕목을 누가 몰랐겠는가? 다만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에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배움은 이와 달라서 온통 입시와 취업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더라도, 규범을 잘 지키도록 배우는 일이야말로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공부이다.

爲學 在於日用行事之間
위 학 재 어 일 용 행 사 지 간

◁격몽요결▷

학문하는 것은 일상에서 행하는 일 사이에 있다.

The contents of learning are among the things we do in our daily life.

*爲: ~을 하다
*學: 학문, 배움
*在: ~에 있다
*於: ~에
*日用: 날마다 쓰다, 일상
*行: 행하다
*事: 일
*之: ~의
*間: 사이

해설

배움의 내용이 일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배움의 대상이 일상과 동떨어진 심오한 무엇이 아니다.

더 소개하면 이 말 뒤에 "만약 평소에 공손하게 거처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을 집행하며 남과 더불어 충직하면, 이것에 이름을 붙여 학문이라 한다"라는 말이 이어진다. 모두 바르게 행동하고 일을 올바르게 처신하는 태도이다.

요즘처럼 아무리 여러 분야의 많은 내용을 배우고 익혀도, 일 처리가 미숙하거나 공손하지 못하거나 남과 충직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선생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배웠다고 할 수 없다.

讀書以資窮理 行善以求復性
독 서 이 자 궁 리 행 선 이 구 복 성

◁증홍생설▷

독서하여 이치 탐구의 바탕으로 삼고, 선을 행하여 본성의 회복을 구한다.

Learners use reading as a basis for the exhaustive search for principle, and seek to restore their nature by doing good.

*讀書: 독서
*資: 바탕, 바탕으로 삼다
*行: 행하다, 실천하다
*求: 구하다, 찾다
*性: 본성, 성품
*以: ~함으로써
*窮理: 이치를 탐구하다
*善: 선, 착함
*復: 회복하다

해설

이제 배움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으로 진술되었다.

일상 삶에서 만나는 규범과 일들은 쉽고 간단해 보이나, 그 근거와 까닭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 모든 사물과 일에는 이치가 있어서 그것을 탐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서의 결과를 그 이치 탐구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본성의 회복'이란 보통 사람들은 타고난 선한 성품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점차 회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양심의 회복과 통한다.

오늘날의 배움도 양심의 회복이 큰 관건이다. 그것이 안 되면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靜則敬直乎中 動則義方於外
정 즉 경 직 호 중 동 즉 의 방 어 외

◁증홍생설▷

머물러 있을 때는 경으로써 내면을 곧게 하고 활동할 때는 의로써 외모를 반듯하게 한다.

When the Superior Man stays at home, he directs his mind with earnestness, and when he is active outside, he straightens his exterior with righteousness.

*靜: 고요하다, 쉬다
*敬: 잡도리하다, 경
*乎: ~을
*動: 활동하다, 움직이다
*方: 방정하다, 반듯하다
*則: ~할 때에는
*直: 곧다
*中: 마음, 중심
*義: 의로움
*外: 바깥, 외모

해설

배움의 내용 가운데 하나로서, 마음과 행동을 곧고 반듯하게 하는 방법을 말했다.

이 말은 원래 『주역』에 나온다. 그 원문은 "군자는 경으로써 안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밖을 반듯하게 한다"라는 '경이직내(敬以直內) 의이방외(義以方外)'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인용하는 글귀이다.

원문 '경'(敬)은 옮기기 어려운 말이다.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을 '하나를 위주로 하여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主一無適]'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마음과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하려면 겉과 속을 잘 단속해야 한다는 뜻이다.

收放心 爲學問之基址
수 방 심 위 학 문 지 기 지

◁성학집요▷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학문의 기초이다.

Recovering the errant mind is the foundation of learning.

*收: 거두어들이다
*放: 놓아버리다
*心: 마음, 본심
*爲: ~이다, ~가 되다
*學問: 학문, 배우고 물음
*之: ~의
*基址: 터, 기초, 토대

해설

배움의 기초는 '놓아버린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문 수방심(收放心)은 원래 『맹자』의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다"라는 구방심(求放心)과 같은 말이다. 여기서 마음이란 보통의 마음이 아니라 착한 본심을 말하며, 오늘날 보통 말하는 양심과 같다. 맹자는 가축이 집을 나가면 사람들이 잘도 찾으면서도, 정작 자기의 본심이 나가면 찾을 줄 모른다고 한탄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러운 까닭 가운데 하나도 다수 학생의 배움의 동기가 그런 착한 마음의 바탕 위에 있지 않고, 각자의 욕심을 성취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居家 當謹守禮法 以率妻子及家衆
거 가 당 근 수 례 법 이 솔 처 자 급 가 중

◁격몽요결▷

집 안에 있을 때는 삼가 예법을 지켜서 아내와 자식과 집안사람들을 잘 거느려야 한다.

When you are at home, you should be careful and observe the rule of good manners, and lead your wife, children, and household members well.

*居: ~에 있다, 살다 *家: 집, 가정
*當: ~해야 한다 *謹: 삼가다
*守: 지키다 *禮法: 예법
*以: 수단, 방법, 도구 등을 나타내는 어조사
*率: 거느리다, 이끌다 *妻子: 아내와 자식
*及: ~와 *衆: 무리

해설

가정생활을 위해 배워야 할 내용이다. 당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으므로 '아내'라는 말이 들어 있다.

앞에서도 배움의 내용은 심오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을 말한 적 있다. 당시는 사람이 자라면 누구나 혼인하므로 가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야 했다.

요즘은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거의 배우지 않는다. 그래서 결혼생활과 자녀 교육에 시행착오가 많아 미숙함을 많이 노출한다. 정규 교육에서 입시에 순위가 밀려 삶의 토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다.

冠婚之禮 當依家禮 不可苟且從俗
관 혼 지 례 당 의 가 례 불 가 구 차 종 속

◁격몽요결▷

관례와 혼례는 가례를 따라야 하지 구차하게 세속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You must follow the coming-of-age ceremony and wedding ceremony according to the Family Rituals of Chu Hsi, not to the worldly customs clumsily.

*冠: 갓, 관
*之: ~의
*當: ~해야 한다
*家: 집, 가정
*不可: ~하면 안 된다
*從: ~을 따르다
*婚: 혼인
*制: 법도, 제도
*依: 의지하다
*禮: 예법
*苟且: 구차하다
*俗: 세속, 풍속

해설

관례와 혼례를 세속의 유행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다. 가정생활에서 배워야 할 구체적 내용이다.

등장하는 '가례'는 가정의 관혼상제 예법으로서 남송의 주희가 엮은 『주자가례』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대개 이것으로 관혼상제를 치렀다.

오늘날은 그것이 남아 있는 집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다. 문제는 각자의 문화나 종교 등의 예법을 따르더라도, 세상의 유행 그것도 예식장에서 상업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식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점이 선생 말씀의 현대적 교훈일 것이다.

兄弟 同受父母遺體 與我如一身
형 제 동 수 부 모 유 체 여 아 여 일 신

◁격몽요결▷

형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을 함께 받았으니 나와 한 몸인 것과 같다.

My brothers and sisters share the body inherited from our parents and are all the same as one body.

*兄弟: 형제, 형과 아우
*受: 받다
*遺: 남기다
*與: ~와 함께
*如: 같다
*同: 같이
*父母: 부모
*體: 몸
*我: 나
*身: 몸

해설

일상의 형제 관계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다.

이 글을 이해하려면 이어지는 내용을 더 보아야 한다. 곧 형제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이 생각하여 음식이나 의복이 있든 없든 간에 함께해야 하고, 또 형제에게 착하지 못한 행동이 있다면 정성을 들여 충고하여 고치게 해야지 화를 내며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처럼 형제끼리 잘 지내는 일은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이고 전통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재산과 집안일로 다투어 남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모두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도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夫婦之間 不失禮敬 然後家事可治也
부 부 지 간 불 실 예 경 연 후 가 사 가 치 야

◁격몽요결▷

부부 사이에 예의와 공경을 잃지 않은 뒤에야 가정의 일을 다스릴 수 있다.

Family affairs could be governed only after propriety and respect have been well observed between husband and wife.

*夫: 남편
*之: ~의
*不: ~하지 않는다
*禮: 예의, 예법
*然後: ~한 뒤에
*可: ~할 수 있다
*婦: 아내
*間: 사이
*失: 잃다
*敬: 공경, 공경하다
*家事: 집안일
*治: 다스리다

해설

일상에서 배워야 할 부부 사이의 도리이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 그것만이 아니다. 부부는 가까운 사이지만 손님처럼 서로 공경해야 한다는 말에서 '공경'이란 말을 사용했다. 그것이 이른바 오륜 가운데 부부유별(夫婦有別)의 참뜻이다.

부부 사이에 사랑만 있고 예절과 공경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동물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 당연히 자녀들이 배울 일도 없다. 가정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아이의 미래는 부모의 태도에서 거의 결정된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若幼而不敎 至於旣長 則習非放心
약 유 이 불 교 지 어 기 장 즉 습 비 방 심
敎之深難
교 지 심 난

◁격몽요결▷

만약 자녀를 어려서 가르치지 않으면, 자라서는 그른 일에 습관이 들고 다른 곳에 마음이 흩어져 가르치기 매우 힘들다.

If you do not teach your children when they are young,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teach them later. It is because when they grow up they get used to wrong things and set their minds on other things.

*若: 만약 *幼: 어리다
*教: 가르치다 *至於: ~에 이르다
*旣: 이미 *長: 자라다
*則: 조건절과 주절을 잇는 접속의 어조사
*習: 습관, 버릇되다 *非: 그름
*放心: 마음을 놓아버림 *教: 가르치다
*之: 어조사로서 대명사로서 문장 속의 자녀를 받음
*甚: 매우 *難: 어렵다, 힘들다

해설

배워야 할 자녀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옛말에 "어린 자식을 너무 예뻐하면 망친다"라는 게 있다. 야단치고 혼내서라도 바른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리라.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은 단지 글공부만이 아니라 바른 도리이다.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주 다투는 까닭은 그 이전에 어릴 때 집에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되레 크고 나서 입시 때문에 청소년들을 야단치고 나무란다. 어릴 때 단속하고 자람에 비례하여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必精思義與非義 義則取之 不義則不取
필 정 사 의 여 비 의 의 즉 취 지 불 의 즉 불 취

◁격몽요결▷

반드시 의와 의가 아님을 정밀하게 생각하여, 의로우면 취하고 의롭지 않으면 취하지 않아야 한다.

When you receive something from others, you must carefully examine whether it is righteous or not righteous, and take it if it is righteous, and not take it if it is not.

*必: 반드시
*思: 생각하다
*與: 와
*則: ~하면(~이면) ~하다
*精: 정밀하다, 면밀하다
*義: 의, 옳음
*非: 아니다
*取: 취하다

해설

남과 물건을 주고받을 때 배워야 할 내용이다.

이 내용은 집안 살림이 가난해서 친구가 주는 물건을 받을 때도 마땅히 받아야 할지,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할지를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아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 다만 혼인의 축의금이나 상사(喪事)의 부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해도 좋다고 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 있어서 공직자들이 과다한 비용의 선물과 주고받는 물품의 액수를 제한하고 있다. 선생의 이런 가르침의 현실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놨다고 해서 잘 지킬 것이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망을 피하거나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법 이전에 도덕성이나 양심의 회복이 관건이다.

接人 當務和敬 最不可恃學自高
접인 당무화경 최불가시학자고
尚氣陵人也
상기능인야

◁격몽요결▷

사람을 대할 때는 화합과 공경에 힘써야 한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학문을 믿고 스스로 높은 체하며 힘을 숭상해서 남을 능멸하는 일이다.

When you face people, you must strive for harmony and respect.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should not do is to believe in learning, to exalt yourself, and to reverence power and humiliate others.

*接: 접하다, 대하다
*務: 힘쓰다
*敬: 공경
*不可: ~하면 안 되다
*學: 배움, 학문
*高: 높다
*氣: 힘
*人: 사람, 남
*當: ~해야 한다
*和: 조화
*最: 가장, 으뜸
*恃: 믿다
*自: 스스로
*尙: 숭상하다, 높이다
*陵: 욕보이다
*也: 종결의 어조사

해설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대할 때 배워야 할 일이다.

원문 화(和)는 화합 또는 남과 잘 어울린다는 뜻이고, 경(敬)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공손의 뜻에 가깝다. 많이 배웠다고 잘 난 척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물리적 힘이 세다고 남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오늘날 영향력이나 힘을 마구 휘두르는 일을 '갑질'이라 부른다. 권력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법을 잘 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선생의 이런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들어 봤는지 모르겠다.

克己工夫 最切於日用
극 기 공 부 최 절 어 일 용

◁격몽요결▷

자기를 이기는 공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다.

Studying to subdue one's self is the most urgent thing in daily life.

*克: 이기다
*工夫: 공부
*切: 절실하다, 가깝다
*日用: 일상생활
*己: 자기
*最: 가장, 으뜸
*於: ~에서

해설

공부의 핵심을 강조하였다.

원문 '극기'는 『논어』의 극기복례(克己復禮)에 나오는 말로서, 극기에서 말하는 '자기'(己)에 대하여 선생은 '내 마음이 좋아하여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 하였다. 쉽게 말해 지나친 욕망이다.

사회 대부분의 부조리는 구성원의 탐욕이 서로 갈등하면서 생기지만, 특히 정치 지도자의 탐욕에서 비롯한다. 과거 왕조시대도 그랬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전쟁과 가난과 기아 문제도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탐욕과 관련이 있다.

극기를 일상생활의 공부에서 절실하게 본 것은 이런 문제의 핵심을 찌른 가르침이다.

居敬以立其本 窮理以明乎善
거 경 이 립 기 본 궁 리 이 명 호 선
力行以踐其實
역 행 이 천 기 실

◁격몽요결▷

경에 거처하여 그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탐구하여 선을 밝히고, 힘써 행하여 그 참됨을 실천해야 한다.

You must establish the foundation by abiding in earnestness, enlighten the good by exhaustive search for principle, and practice the truth by diligently doing it.

*居: 거하다, 살다
*以: ~으로써(서)
*其: 그(대명사)
*窮理: 이치를 탐구하다
*乎: ~을
*力行: 힘써 행하다
*實: 참, 진실
*敬: 경, 공경
*立: 세우다
*本: 근본
*明: 밝히다
*善: 착함, 선
*踐: 밟다, 실천하다

해설

배워야 할 공부의 방법을 말했다.

그 조목은 '거경'과 '궁리'와 '역행'이다. 선생은 이 세 가지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보통 성리학에서 거경궁리를 공부의 방법으로 자주 말하는데, 선생은 역행과 함께 강조하였다.

거경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며, 궁리는 이치를 탐구하는 일이고, 역행은 힘써 실천하는 일이다. 단순화하면 '마음 자세'와 '앎'과 '실천'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공부의 방법이라는 뜻이다.

人言科業爲累 不能學問 此亦推託之言
인 언 과 업 위 루 불 능 학 문 차 역 추 탁 지 언
非出於誠心也
비 출 어 성 심 야

◁격몽요결▷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거시험 공부에 매여 학문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 이 또한 핑계 대는 말이요, 성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People say, "I can't study because I'm tied up with studying for the national examination." But this is also an excuse, and it doesn't come from a sincere mind.

*言: 말하다, 말 *爲累: 묶이다, 매이다
*科業: 과거시험에 보는 데 필요한 학업
*不能: ~할 수 없다 *此: 이, 이것(대명사)
*亦: 또한 *推: 미루다
*託: 맡기다 *之: ~하는
*出: 나오다 *於: ~에서
*誠心: 성실한 마음 *也: 종결의 어조사

해설

배움의 중요한 내용이 과거시험과 별도로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과거시험 과목의 내용과 참된 인간이 되는 학문의 내용이 다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양상과 똑같다. 사람답게 되는 공부보다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어찌 초중등 교육과정에 인간답게 하는 내용이 없겠냐마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그것을 원하기에 학교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그렇다.

그러므로 시험에 합격했다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聖賢之學 不過修己治人而已
성 현 지 학 불 과 수 기 치 인 이 이

◁성학집요▷

성현의 학문은 자기 몸을 닦아 남을 다스리는 일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The learning of saints and sages is nothing more than the study of governing others after self-cultivation.

*聖賢: 성현, 성인과 현인
*之: ~의
*不過: ~에 지나지 않는다
*修: 닦다
*己: 자기
*治: 다스리다
*人: 남
*而已: ~뿐이다, ~따름이다, 문장 뒤에서 단정하는 어조사

해설

유학이 지향하는 핵심을 말하였다.

성현이 되는 일이 배움의 목표라면, 수기치인(修己治人)은 그 목표에 맞는 내용이다.

수기치인이라는 말은 『논어』에 "자기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와 "자기 몸을 닦아 남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대개 성현이나 군자는 사회의 리더이다. 리더는 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자기 몸을 닦아 수양한 뒤 남을 이끌어야 한다.

오늘날 주변의 리더를 보면, 수양이 안 되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인사들이 꽤 많다. 그래서 세상이 더 혼란스럽다.

修己工夫 有知有行 知以明善 行以誠身
수 기 공 부 유 지 유 행 지 이 명 선 행 이 성 신

◁성학집요▷

몸을 닦는 공부에는 앎과 행동이 있다. 앎으로 선을 밝히고 행동으로 몸을 성실하게 한다.

There are knowledge and action in the study in which we cultivate ourselves. With knowledge, we enlighten the good, and with action, make our bodies sincere.

*修: 닦다 *己: 몸, 자기
*工夫: 공부 *有: 있다, 소유하다
*知: 앎 *行: 행동, 실천
*明: 밝히다 *善: 착함, 선
*以: 수단, 방법, 도구를 나타내는 어조사
*誠: 성실하게 하다 *身: 몸

해설

앞의 수기치인에 이어 배움의 내용으로서 수기의 방법을 말하였다.

"자기 몸을 닦는다"라는 수기는 달리 수신(修身)으로도 부르고 『대학』에 나오며, 이 둘은 보통 수양이라는 말과 함께 쓴다.

여기서 공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지적 공부로서 선이 무엇인지 아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 공부로서 행동을 참되게 하는 문제이다. 앎과 실천은 공부의 두 날개이다.

오늘날 선과 무관한 실용적 앎의 공부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고 해서 행동이 반드시 올바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恢德量 無他工夫 只是矯氣質之一事
회 덕 량 무 타 공 부 지 시 교 기 질 지 일 사

◁성학집요▷

덕량을 넓히는 데는 다른 공부가 없고, 다만 기질을 바로잡는 한 가지의 일뿐이다.

There is no other study to broaden one's virtue, but only one study to correct one's temperament.

*恢: 넓히다
*無: 없다
*工夫: 공부
*是: ~이다
*氣質: 기질, 여기서는 성격
*一: 하나, 한 가지
*德量: 덕스러운 도량
*他: 다른
*只: 다만, 단지
*矯: 바로 잡다
*之: ~의
*事: 일

해설

사람의 덕스러운 도량이 넓지 못한 까닭은 좋지 못한 기질에서 나온다고 한다. 기질은 요즘 말로 성격과 통한다. 그래서 좋지 못한 성격을 바로잡으면, 덕스러운 도량을 넓힐 수 있다고 한다.

이 내용은 선생의 유명한 기질 변화를 말하는 '교기질'(矯氣質) 사상이다. 사실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선생이 말하는 그것은 수양을 통해서 그 기질이 작용하는 성격 또는 성향 교정의 뜻에 가깝다.

그래서 사람이 덕량을 넓히는 공부는 좋지 못한 자기의 성격을 바꾸는 일 하나뿐이라고 강조했다.

04

어떻게 배워야 할까?

How should you learn?

이 장은 배움의 방법으로 추상적 원리의 나열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내용 속에 방법이 들어 있다. 해설에서 그 논리를 추출한다.

立志 學者 先須立志
입 지 학 자 선 수 입 지

◁학교모범▷

뜻을 세움: 배우는 사람은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Establishing one's will: A student must first establish his will.

*立: 세우다
*志: 뜻, 꿈
*學者: 배우는 사람
*先: 먼저
*須: ~해야 한다

해설

'뜻을 세움'은 배움에서 목표 설정이자 그 내용 그리고 방법이기도 하다. 곧 무엇이 되겠다고 뜻을 세우는 대상이 배움의 목표라면, 뜻을 세우는 일 그 자체는 배움의 내용이고, 뜻을 세움은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으로서 목표 설정에 해당한다.

아무튼 배움에서 목표를 세우는 일은 여러 방법 가운데 맨 먼저 시작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목표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가령 수학 공부의 경우 이번 달에는 방정식을 익히고, 다음 달에는 함수를 이해한다는 따위가 그런 것이다.

이처럼 선생의 입지는 공부 방법상 배움의 목표 설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檢身 必須洗滌舊習 一意向學 檢束身行
검신 필수세척구습 일의향학 검속신행

◁학교모범▷

몸가짐과 행동을 단속함: 반드시 낡은 습관을 씻어버리고 한결같은 뜻으로 배움에 지향하며 몸가짐과 행동을 단속해야 한다.

Controlling one's attitude and behavior: A student must wash away his old habits and pursue learning with a consistent mindset, and must control his attitude and behavior.

*檢: 단속하다, 잡도리하다
*必須: 반드시~해야 한다
*滌: 씻다
*習: 습관, 익힌 것
*意: 뜻, 의도
*身: 몸
*洗: 씻다
*舊: 예, 오래
*一: 한결같다
*向: 향하다

해설

뜻을 이루는 방법 가운데 일로서 낡은 습관을 버리고 학문에 뜻을 두고 몸가짐과 행동을 스스로 단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은 나에게 있는 배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는 뜻이다. 나쁜 습관과 버릇을 제거하여 행동을 목표에 맞게 통제하는 일이 그것이다. 선생의 학문관에 비추어 볼 때, 몸가짐과 행동을 단속하는 일은 성현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처럼 배움의 대상이 참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지식과 기능 그리고 기술만 익히는 일이라면 선생의 이런 방법을 쓸 일이 없다. 하지만 현재의 많은 비극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단속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讀書 必須讀書講學 以明義理
독서 필수독서강학 이명의리

◁학교모범▷

독서: 반드시 글을 읽고 강학하여 뜻과 이치를 밝혀야 한다.

Reading: You must read the text and discourse on learning to reveal its meanings and Principles.

*讀: 읽다 *書: 책, 글
*必須: 반드시 ~해야 한다 *講: 강론하다
*以: 수단, 방법, 도구를 나타내는 어조사
*明: 밝히다 *義理: 의미, 내용, 도리

해설

배우는 방법의 하나로 독서를 강조했다.

독서는 지금까지도 교육 현장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다만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선생이 살았을 때의 그것은 대부분 유교 경전과 역사책 등이다. 그 책에 대해서는 『격몽요결』과 『학교모범』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요즘은 책을 읽지 않고 인터넷 동영상을 많이 본다. 물론 그것도 정보를 얻는 유효한 방법이긴 하지만 다 좋을 수만은 없다. 그 단점 가운데 한두 가지만 말하면, 남이 보여주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므로 비판력과 사고력이 줄어들거나 약해지고, 문장 이해력을 기르는 일도 어렵고, 또 거짓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慎言人之過失 多由言語 言必忠信 發必以時
신 언 인 지 과 실 다 유 언 어 언 필 충 신 발 필 이 시

◁학교모범▷

말을 삼감: 사람의 잘못은 대부분 말 때문이니 말은 참되고 믿음직하게 하고, 때에 맞게 말해야 한다.

Refrain from talking: Most of people's faults are due to their words, so you must speak with wholehearted sincerity and truthfulness, and speak at the right time.

*愼: 삼가다
*過失: 잘못, 허물
*由: 말미암다
*語: 말씀, 말
*忠: 충성, 참마음
*發: 드러내다, 말하다
*時: 때, 때에 맞다
*之: ~의
*多: 많다, 대부분
*言: 말씀, 말
*必: 반드시
*信: 믿다, 믿음직함
*以: ~로써

해설

말을 삼가고 때에 맞게 함은 성현이 되는 공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원문 '신언'(愼言)과 '충신'(忠信)은 모두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말을 삼간다는 뜻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믿음직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되 때에 맞게 말하라는 뜻으로 풀이했다.

요즘은 매체의 발달로 '아무 말 대 잔치'가 유행이다. 그래서 말의 가치가 떨어지고 신뢰가 없어, 그 허물이 자신들에게 되돌아간다. 어리석게도 그걸 두려워할 줄 모른다.

存心 學者欲身之修 必須內正其心
존 심 학 자 욕 신 지 수 필 수 내 정 기 심
不爲物誘
불 위 물 유

◁학교모범▷

본마음을 보존함: 배우는 사람이 자기 몸을 닦으려면 반드시 안으로 그 마음을 바로잡아 바깥 사물의 유혹을 받지 않아야 한다.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mind: If a learner wants to cultivate the self, he must rectify his mind internally and not be tempted by external things.

*存: 보존하다
*欲: ~하려고 하다
*之: ~의
*必須: 반드시 ~해야 한다
*正: 바로잡다, 바르게 하다
*不爲: ~에 당하지 않다
*誘: 꾀다, 유혹하다
*心: 마음, 본심
*身: 몸
*修: 닦다, 닦음, 수양
*內: 안
*其: 그(대명사)
*物: 물건, 사물

해설

자기 몸을 닦는 방법을 말했다.

사실 몸을 닦는다는 '수신'(修身)은 마음을 닦는 일과 같이 쓰인다. 그러나 유가에서는 수심(修心)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다. 불교 용어라는 까닭도 있다.

거꾸로 마음을 닦으면 몸도 닦인다. 그 까닭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 몸단속을 통해 마음을 바로잡는 길이 좋다. 『소학』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다.

본마음은 양심과 통한다.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오늘날 인기와 명성과 돈과 권세의 유혹에 양심을 팽개친 사람들이 많아 양심적인 사람이 훌륭하다고 칭찬받는다.

事親 士有百行 孝悌爲本
사 친 사 유 백 행 효 제 위 본

◁학교모범▷

어버이를 섬김: 선비의 온갖 행실 가운데 효도와 우애가 근본이다.

Tending one's parents: Among all the behaviors of scholars, filial piety and brotherly love are fundamental.

*事: 섬기다
*士: 선비
*百: 온갖, 일백
*孝: 효도
*爲: ~이 되다
*親: 어버이
*有: 소유하다
*行: 행실, 행동
*悌: 우애, 공경하다
*本: 근본

해설

어버이 섬김과 형제 사이의 우애를 말하였다.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배움의 내용이자 동시에 성인 되기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본문에서 우애로 옮긴 '제'(悌)는 형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뜻으로도 쓴다. 옛날의 막내는 대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이 부모처럼 키웠기 때문이다. 이후 자연스럽게 윗사람을 공경하는 뜻으로 쓰였다. 요즘 사람들은 대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효도하지 못한 일을 후회한다.

교육 방법론에서 볼 때 도덕적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학생에게 가까운 일부터 실천하는 일이 효과적임을 알려준다.

事師 學者 誠心向道
사 사 학 자 성 심 향 도
則必須先隆事師之道
즉 필 수 선 륭 사 사 지 도

◁학교모범▷

스승을 섬김: 배우는 사람이 성실한 마음으로 도를 향한다면, 반드시 먼저 스승 섬기는 도리를 융숭히 해야 한다.

Respect for master: If a learner aims for the Way with a sincere heart, he must first boost the manners of respecting his teacher.

*事: 섬기다
*誠心: 성실한 마음
*道: 도, 길, 도리
*必須: 반드시 ~해야 한다
*隆: 높이다
*師: 스승
*向: 향하다
*則: ~하면 ~하다
*先: 먼저
*之: ~의

해설

스승을 섬기는 도리에 힘쓸 것을 말했다.

이 또한 일상생활 속 도리의 실천을 통하여 참사람이 되는 목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교육 방법으로서는 교육자의 존중이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끈다. 학생들은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본받거나 그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돈이나 인기나 명성으로 판단하는 요즘 세태에 스승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학부모가 자녀의 스승을 높이는 일은 일차적으로 자기 자식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擇友 傳道解惑 雖在於師 而離澤輔仁
택우 전도해혹 수재어사 이이택보인
實賴朋友
실뢰붕우

◁학교모범▷

친구의 선택: 도리를 전하고 의문을 풀어주는 일은 비록 스승에게 있지만, 서로 가까이서 배움을 갈고 닦으며 인을 돕는 일은 실로 친구에게 힘입는다.

Choosing the right friends: Although it is up to the teacher to teach the moral principles and solve the questions, being close to each other and helping benevolence by cultivating each other's learning is really thanks to friends.

*擇: 가리다, 선택하다
*傳: 전하다, 전달하다
*解: 풀다
*雖: 비록 ~하다
*於: ~에
*而: ~하나
*澤: 연못
*仁: 인, 어짐
*賴: 힘입다, 의지하다
*友: 벗, 친구
*道: 도리
*惑: 의심, 의문
*在: ~에 있다
*師: 스승
*麗: 붙다
*輔: 돕다
*實: 참으로
*朋: 벗, 친구

해설

친구를 잘 사귀는 일이 배움의 중요한 방법임을 말하였다.

많은 사례를 보면 친구로 인해 잘 되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교육 방법에서 보면, 학습에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원문 '이택'(麗澤)은 『주역』「태괘」(兌卦)에 나오는 말이다. 두 개의 연못이 붙어 서로 적셔주는 모습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친구들이 가까이서 공부하는 모습으로 비유했다. 붕우강습(朋友講習)이라는 말이 거기서 유래했다.

必以忠信爲主 而勇下工夫
필 이 충 신 위 주 이 용 하 공 부
然後能有所成就
연 후 능 유 소 성 취

◁격몽요결▷

반드시 충직과 신의를 위주로 공부에 용감하게 착수해야 한다. 그런 뒤에 성취한 바가 있을 수 있게 된다.

You must courageously embark on your studies, focusing on wholehearted sincerity and truthfulness. After that, there may be something accomplished.

*必: 반드시
*忠: 참마음, 충직
*主: 주인
*下: 착수하다, 손대다
*然後: 그런 뒤에
*有: 소유하다, 가지다
*成: 이루다
*以~爲~: ~을 ~로 삼다
*信: 신의
*勇: 용감히
*工夫: 공부
*能: ~할 수 있다
*所: ~하는 것
*就: 이루다

해설

용감하게 공부에 착수하는 방법과 그 덕목을 말하였다.

공부에 용감하게 착수하는 데도 방법이 있다. 바로 '충'(忠)과 '신'(信)이 그것이다. 이 말은 일찍이 『논어』에 보인다. 충은 보통 '자기를 다하는 것'으로 내면의 일이라면, 신은 충의 마음이 남이 볼 수 있는 외면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직하여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게 된다. 특히 충이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마음가짐이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행동해야 배움의 성과가 생긴다.

必須讀書窮理 以明當行之路
필 수 독 서 궁 리 이 명 당 행 지 로

◁격몽요결▷

반드시 글을 읽고 이치를 탐구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밝혀야 한다.

You must read the text and search for principle exhaustively, and enlighten the way you should follow.

*必須: 반드시 ~해야 한다
*窮理: 이치를 탐구하다
*明: 밝히다
*行: 행하다, 실천하다
*路: 길
*讀書: 책을 읽다, 독서
*以: ~함으로써
*當: 마땅히 ~해야 하는
*之: ~는, ~의

해설

배움의 방법으로 독서와 궁리를 들었다.

독서의 대상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부분 유교 경전과 역사책이다. 궁리란 요즘 '탐구하다' 또는 '연구하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 성리학에서 이치를 끝까지 탐구한다는 말이다.

또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란 인간이 평소에 실천해야 할 도리를 말한다. 대체로 선생이 말하는 배움은 자연과학이나 수학 등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이다.

교육 방법에서 보자면, 독서와 궁리는 학력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若於平居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약 어 평 거 거 처 공 집 사 경 여 인 충
則是名爲學
즉 시 명 위 학

◁격몽요결▷

만약 평소에 거처하는 일이 공손하고, 일을 집행함에 공경히 하고, 남과 어울리기를 충직하게 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학문하는 것이라 한다.

If you are courteous in your usual place of residence, earnest in executing your duties, and faithful in getting along with others, this is called learning.

*若: 만약
*於: ~에서
*平: 평상
*居: 살다, 거주하다
*處: 장소, 살다
*恭: 공손하다
*執: 잡다
*事: 일
*敬: 공경, 경
*與: ~와 함께하다
*人: 남
*忠: 충직하다, 참되다
*則: 조건절과 주절을 잇는 접속사
*是: 이, 이것
*名: 이름 짓다, 이름 붙이다

해설

공손한 태도, 일을 집행할 때 정성을 다해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는 것, 남과 함께 어울릴 때 참마음으로 대하는 일 등이 학문한다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학문의 내용이나 태도 또는 방법을 뜻한다.

교육 방법에서 본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배움의 내용을 직접 실천해 보는 일이 곧 배움의 방법이다. 특히 도덕교육에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서 이러한 태도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學者 常存此心 不被事物所勝
학 자 상 존 차 심 불 피 사 물 소 승

◁격몽요결▷

배우는 사람은 항상 이 마음을 보존하여 사물에게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learner always preserves this mind so that he will not be overcome by external things.

*學者: 배우는 사람, 학자
*存: 보존하다
*心: 마음, 본마음
*被~所: ~에게 당하다
*勝: 이기다
*常: 항상
*此: 이것, 이
*不: ~아니하다
*事物: 사물

해설

배우는 방법으로서, 항상 본마음을 보존할 것을 말했다.

본문의 '이 마음'이란 인간의 본마음을 말한다. 맹자가 일찍이 말한 인간 본래의 선한 마음으로 양심과 같은 뜻이다. "사물에게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은 외부 사물에 자기의 본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 방법에서 보면, 이것은 배우는 사람이 학습의 주체로서 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과학이나 기술 같은 과목을 공부할지라도, 결국 그 결과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

讀書 是窮理之一事
독 서 시 궁 리 지 일 사

◁성학집요▷

글 읽기는 이치를 탐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의 일이다.

Reading is one of the tasks of the exhaustive search for principle.

*讀書: 독서, 글 읽기
*窮: 궁구하다, 탐구하다
*之: ~의, ~하는
*事: 일
*是: ~이다
*理: 이치
*一: 하나, 한 가지

해설

독서가 공부 방법의 하나임을 말했다.

궁리는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는 일이다. 이치는 '사물이 원래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까닭이며 운동법칙'이다. 동시에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도덕법칙'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글 읽기가 이치를 탐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의 일'이라고 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계를 말했다. 다시 말하면 궁리 가운데 독서 외의 방법도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은 대개 직접 자연이나 사회 현상을 탐구한다. 다만 인문과학에서는 아직도 글을 읽는 일이 강력한 탐구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인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독서하지 않으면, 역사나 세상의 이치에 어두워 무식하다고 조롱당한다.

聖賢用心之跡 及善惡之可效可戒者
성 현 용 심 지 적 급 선 악 지 가 효 가 계 자
皆在於書
개 재 어 서

◁격몽요결▷

성현이 마음 쓴 자취와 본받거나 경계할 만한 선과 악이 모두 책 속에 있다.

The traces of saint and sage's hearts and the good or evil deeds that can be imitated or warned are all in the book.

*聖賢: 성인과 현인
*心: 마음
*迹: 자취
*善惡: 선과 악
*效: 본받다
*者: ~것
*在: 있다
*書: 책, 글
*用: 쓰다
*之: ~의
*及: ~와, ~과
*可: ~할만한
*戒: 경계하다
*皆: 모두
*於: ~에

해설

배움의 방법으로 독서의 중요성을 말했다.

경전은 물론이고 일반 서적 속에도 본받거나 경계해야 할 대부분의 일들이 들어 있다.

이런 교육 방법은 특히 도덕이나 예체능 교육에서 훌륭한 모델의 태도를 본받거나 나쁜 행위를 경계하는 일로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이나 유년기 아이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닮고 싶어 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른다는 사실은 이 점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분야의 성공한 사람을 닮고 싶어 한다.

若口讀 而心不體身不行 則書自書我自我
약 구 독 이 심 불 체 신 불 행 즉 서 자 서 아 자 아
何益之有
하 익 지 유

◁격몽요결▷

만약 입으로만 읽어서 마음에 체득하지 않고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대로이고 나는 나대로이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If you only read with your mouth and don't learn it with your heart and don't practice it with your body, then the book will be as it is and you will be as you are, so what good will be for you?

*若: 만약
*讀: 읽다
*體: 체득하다
*行: 행하다, 실천하다
*書: 책
*我: 나
*益: 이익, 보탬
*口: 입
*而: 하고(서)
*身: 몸
*則: ~하면
*自: 따르다
*何: 무슨
*之: 문장 도치의 어조사

해설

독서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독서가 배움의 큰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서는 그 독서의 방법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이 독서법은 가치의 인식과 실천에 유효하다. 그야말로 책의 내용이 나의 피와 살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물론 절대로 그냥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크게 고민하고 사색하다가 독서를 통해 그 일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된다. 그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 아는 경지이다. 그래서 이런 독서는 삶의 의미를 묻는 물음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凡讀書 必熟讀一冊 盡曉義趣 貫通無疑
범독서 필숙독일책 진효의취 관통무의
然後 乃改讀他書
연후 내개독타서

◁격몽요결▷

무릇 독서는 반드시 한 가지 책을 익숙하게 읽어서 의미와 취지를 다 깨달아 꿰뚫어 통달하고, 의문이 사라진 뒤에야 다시 다른 책을 읽어야 한다.

In all reading, one must be familiar with one book, understand its meaning and purpose, penetrate and master it, and read another book only after the doubts have disappeared.

*凡: 무릇, 모두
*熟: 익숙하다
*册: 책
*曉: 환하게 알다
*貫通: 꿰뚫어 알다
*然後: ~한 뒤에
*改: 다시, 고치다
*必: 반드시 ~해야 한다
*讀: 읽다
*盡: 모두, 다
*義趣: 의미와 취지
*疑: 의심
*乃: 이에
*他: 다른

해설

독서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정독(精讀)과 관계되는 글이다.

이 내용을 연구자가 어떤 주제를 두고 여러 책을 참고하여 읽는 방식의 설명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배우는 사람이 여러 책을 동시에 이것저것 읽으면 하나의 책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전체 내용도 부실하게 파악하게 된다는 뜻이다. "의문이 사라진다"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다는 뜻으로 정독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교육 방법은 하나의 책이라도 제대로 읽어서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것이 다독을 위한 지름길이다. 이해한 개념은 다른 책에도 적용된다.

有事則以理應事 讀書則以誠窮理
유 사 즉 이 리 응 사 독 서 즉 이 성 궁 리

◁격몽요결▷

일이 있으면 이치로서 일에 대응하고, 독서는 정성껏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When learners have work, they should respond to work with Principals, and when reading, they should search for principle sincerely.

*有事: 일을 가지고 있다
*以: 수단, 방법의 어조사
*應: 응하다, 대응하다
*窮理: 이치를 탐구하다
*則: ~하면 ~하다
*理: 이치
*誠: 정성, 성실

해설

배움의 방법으로서 이치로서 일에 대응하는 것과 독서를 들었다.

그 출발은 『논어』에 보인다. 어떤 일을 실천한 다음 힘이 남아돌면 글공부하라는 말이 그것이다. 그래서 본문은 할 일이 있으면 배운 이치를 가지고 일에 대응하고, 글을 읽을 때는 정성껏 탐구한다고 하였다. 지적 배움이라 할지라도 활동과 겸해서 하면 효과가 더욱 크다.

오늘날 입시 교육의 비극은 활동을 묶어 둔 채 오로지 머릿속에 지식과 문제 푸는 요령을 심어주는 데 있다. 그 잘못의 결과는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생활을 할 때 그들의 미숙함과 부적응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 사회가 온통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每日 頻自點檢 心不存乎 學不進乎
매 일 빈 자 점 검 심 불 존 호 학 불 진 호
行不力乎
행 불 력 호

◁격몽요결▷

날마다 자주 스스로 점검한다. 본마음을 보존하지 않았는가? 학문이 진보하지 않았는가? 실천에 힘쓰지 않았는가?

The learner checks himself often every day. Haven't he preserved his original mind? Has not his learning progressed? Hasn't he been working hard in practice?

*每日: 매일 *頻: 자주
*自: 스스로 *點檢: 점검(하다)
*心: 본마음, 본심 *存: 보존하다
*乎: 의문문이나 감탄문 뒤에 붙는 어조사
*進: 나아가다, 진보하다 *行: 실천, 행동
*力: 힘쓰다, 力行은 힘써 실천한다는 뜻

해설

배움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매일 자기를 점검하는 일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논어』「학이」의 증자의 말에 보인다. 곧 "나는 날마다 세 가지를 반성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충직하게 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사귈 때 믿음직하게 하지 않았는가? 배운 내용을 익히지 않았는가?" 선생의 점검은 증자의 반성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반성(反省)이 되돌려 살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성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어쩌면 반성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교육 방법은 배운 내용이나 태도를 스스로 점검 또는 평가하기이다.

學者先絶利心 然後可以學仁矣
학 자 선 절 이 심 연 후 가 이 학 인 의

◁격몽요결▷

배우는 사람은 먼저 이기심을 끊은 다음에야 사랑을 배울 수 있다.

A learner can learn benevolence only after he has first renounced selfish mind.

*先: 먼저
*利心: 이기심
*可: ~할 수 있다
*仁: 인, 어짐, 사랑
*絶: 끊다
*然後: 그런 뒤에
*以: ~함으로써
*矣: 문장 종결의 어조사

해설

배움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이기심을 끊는 일을 들었다.

이기심은 자기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다. 학문의 목표가 성인이자 참된 인간이 되는 일이므로, 이기심은 심각한 방해물이다.

본문의 인(仁)은 공자의 용례에 비추어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도덕 원리의 총체로서 인간답게 만드는 가치이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사랑으로 옮겨 봤다. 남송의 주희는 '마음의 덕이자 사랑의 이치'로 풀었다.

교육 방법에서는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특히 이기심은 도덕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본인의 도덕성과 욕망의 갈등 요인이다.

正心 所以治內 檢身 所以治外
정 심 소 이 치 내 검 신 소 이 치 외

◁성학집요▷

마음을 바르게 함은 안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몸을 잡도리함은 밖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Rectifying one's mind is a way to control the inner mind, and supervising the body is a way to control the outer behavior.

*正: 바르게 하다
*心: 마음
*所以: ~을 가지고 함, 방법
*治: 다스리다
*內: 안, 마음
*檢: 잡도리하다
*身: 몸
*外: 밖, 행동

해설

몸을 잡도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내용은 유학 수양론의 핵심이다. 모든 행위의 옳고 그름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 공부를 통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거나 반대로 마음공부를 통해 몸을 반듯하게 하려고 하였다. 전자는 『소학』의 방법으로 초학자의 일이고, 후자는 『대학』의 방법으로 기초를 닦은 사람의 공부이다.

선생의 그것은 안과 밖을 다스리는 공부 방법으로 삼았다. '검신'(檢身)에 해당하는 말은 『소학』에서는 경신(敬身)이라고 하였다.

修己之功 不出於居敬窮理力行三者
수 기 지 공 불 출 어 거 경 궁 리 역 행 삼 자

◁성학집요▷

몸을 닦는 공부는 경에 거처하고 이치를 탐구하며 힘써 행하는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The study of cultivating oneself does not deviate from the three things: holding oneself in earnestness, exhaustively searching for principle, and working hard in practice.

*修己: 몸을 닦음
*功: 노력, 공부
*於: ~에서
*敬: 경, 공경
*力: 힘써
*之: ~의
*出: 벗어나다
*居: 살다, 거처하다
*窮理: 이치를 탐구하다
*行: 행하다, 실천하다

해설

몸을 닦는 공부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했다.

수기는 성인이 되는 중간 목표이자 내용이며 방법이다. 거경과 궁리와 역행은 그것의 방법이다.

먼저 거경은 마음이 항상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게 잡도리하는 일이다. 곧 한곳에 집중하는 마음 상태이다. 궁리는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는 일이며, 역행이란 힘써 도리를 실천하는 일이다.

교육활동에서는 학습자의 마음 자세와 지식(또는 가치) 탐구와 실천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현대의 교육과정상의 목표도 이와 유사하게 지(知)·정(情)·의(意)의 요소가 들어 있다. 하지만 현실 교육은 그것을 제대로 구현하는지 미지수이다.

05

어떤 자세로 배울까?

With what attitudes should you learn?

이 장은 학습자가 배울 때의 태도 또는 마음의 상태이다. 전통 학문에서는 배움의 자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使此心無一點舊染之汚
사 차 심 무 일 점 구 염 지 오
然後可以論進學之工夫矣
연 후 가 이 논 진 학 지 공 부 의

◁격몽요결▷

이 마음에 옛날의 물든 더러움이 한 점도 없게 해야 배움에 나아가는 공부를 논의할 수 있다.

Only when there is not a speck of dirt stained in the past in this mind can we discuss the study of going to learning.

*使: ~를 ~하게 하다
*無: 없다
*舊: 옛날, 오래
*汚: 더럽다
*可: ~할 수 있다
*論: 논하다, 말하다
*此心: 이 마음
*一點: 한 점
*染: 물들이다
*然後: ~한 뒤에야
*以: ~함으로써
*進學: 학문에 나아가다

해설

배움에 나아가기 전에 갖추어야 할 마음 상태이다.

흔히 종교에 입문하려면 정화의식이 필요하다. 회개하든 또 무슨 의식을 하든지 과거의 습관에 젖었던 일이나 저질렀던 일들을 청산해야 그 종교에서 바라는 새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선생의 이 발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성인이 되는 학문이니 당연하지 않겠는가?

교육 방법에서 보면 학교나 가정에서 때마다 치르는 의식과 축하회도 이와 관련된다. 학생들이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學者 近思力行爲急務 至於天命
학 자 근 사 역 행 위 급 무 지 어 천 명
則非猝然可談者也
즉 비 졸 연 가 담 자 야

<논심성정(論心性情)>

배우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까운 일을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는 일이 급한 일이지, 하늘의 명령 같은 것은 갑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It is urgent for a learner to reflect on what is at hand and to work hard in practice, but it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suddenly said about something like a will of Heaven.

*學者: 배우는 사람
*思: 생각하다
*爲: ~이다
*至於: ~와 같은 것
*則: ~은
*猝然: 갑작스럽게, 불쑥
*談: 말하다
*近: 가깝다
*力行: 힘써 실천하다
*急務: 급한 일
*天命: 하늘의 명령 또는 뜻
*非: 아니다
*可: ~할 수 있다
*者: ~하는 것

해설

단계에 맞게 배우는 태도이다.

원문 근사(近思)는 『논어』에 나오는 말로서 일상의 가까이 있는 도리부터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선생이 『격몽요결』 서문에서 밝혔듯이 배움의 내용이란 평상시에 하는 일로서, 처음부터 고차원적이고 심오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곧 『논어』의 하학상달(下學上達)처럼 가까이 있는 작은 대상부터 배워 점차 높은 경지에 이르는 길이다.

교육 방법에서 보면 처음부터 수준을 너무 높이 잡아 빠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수준별 학습과 통한다.

用功 不緩不急 死而後已
용 공 불 완 불 급 사 이 후 이

◁자경문▷

공부하는 일은 느려서도 빨라서도 안 되니 죽은 뒤에야 끝나기 때문이다.

The reason why I should not be slow or fast in my studies is because these things will only end after I die.

*用功: 노력하다, 힘쓰다
*緩: 느리다
*死: 죽다
*後: 뒤에
*不: ~아니하다
*急: 급하다
*而: 문장 접속의 어조사
*已: 말다, 그치다

해설

선생이 스스로 다짐하는 말로서, 공부에는 서두르거나 느리게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죽은 뒤에야 끝난다"라는 말은 『논어』 속의 "임무는 막중하고 길은 멀다"라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의 뒤에 이어지는 글에서 가져왔다.

입시 공부라면 서둘러서 선행학습까지 하고, 늘 하는 공부라면 느긋해질 수 있다. 하지만 선생은 둘 다 경계하였다. 학문을 통해 성인이 되는 길이기에 지체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죽을 때까지도 꾸준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

교육 관점에서 보면 학습 속도 조절이다.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생의 발달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면 서두르거나 느리게 할 수 없다.

若求速其效 則此亦利心
약 구 속 기 효 즉 차 역 이 심

◁자경문▷

만약 배움의 효과를 빨리 찾으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이기심이다.

If you find the effect of learning quickly, it is also from selfish mind.

*若~則~: 만약 ~하면 ~하다의 구문에 쓰임

*求: 구하다, 찾다

*速: 빠르다, 빨리

*其: 그(대명사)

*效: 효과

*此: 이, 이것

*亦: 또한

*利心: 이기심, 욕심

해설

선생이 스스로 다짐하는 말로서, 배움의 효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말이다.

흔히 학생들 가운데는 조금 배워서 무엇을 익히거나 알만하면 다 배웠다고 자만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홍콩 무술영화에도 다 배웠다고 하산하여 사고 치는 젊은이도 그렇고, 예능을 배우다가 빨리 연예인이 되려고 어설프게 나왔다가 되레 배움도 망치는 일이 그런 일이다.

효과를 빨리 보려는 비유를 『맹자』에서 조장(助長)이라 말한 바 있다. 곧 어리석은 농부가 싹을 빨리 자라게 하고 싶어 잡아당긴 일이 그것이니, 딱하게도 싹은 다음 날 밭에 가 보니 다 말라 죽고 말았다.

所謂眞實心地 刻苦工夫 兩言盡之矣
소 위 진 실 심 지 각 고 공 부 양 언 진 지 의

◁격몽요결▷

이른바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공부를 애써서 하라"라는 두 마디 말씀이 그 뜻을 다하였다.

The two words, "Be sincere in your heart and study hard" perfectly expressed his meaning.

*所謂: 이른바
*心地: 마음, 마음의 본바탕
*工夫: 공부
*言: 말씀
*之: 그(대명사)
*眞實: 진실(하다)
*刻苦: 몹시 애씀
*兩: 둘, 아울러
*盡: 다하다
*矣: 문장 끝에 붙는 어조사

해설

배움에서 마음과 공부의 자세를 말한 내용이다.

원래 맨 앞에 '黃勉齋라는 글이 붙어 있다. 그는 남송의 학자로 이름이 황간(黃幹)이고, 주희의 제자이다. '그 뜻'이란 앞 문장에 나온 공자의 주충신(主忠信)을 주희가 풀이한 내용이다.

"마음을 진실하게 한다"라는 말은 배움 또는 학습의 동기와 관련된다. 불순한 동기에서 배우는 일은 도둑이 그 기술을 배우는 일과 다름이 없다. 돈과 명성만을 위해 배우는 일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칭찬할 만한 동기는 아니다.

그리고 공부는 원래 힘써 하는 일이다. 힘쓰지 않으면 그 효과도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움의 태도에는 이 두 가지면 족하다고 하였다.

學者 必誠心向道 不以世俗雜事 亂其志
학 자 필 성 심 향 도 불 이 세 속 잡 사 난 기 지
然後爲學有基址
연 후 위 학 유 기 지

◁격몽요결▷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성실한 마음으로 도리를 향하되, 세속의 잡된 일이 자기의 뜻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한 뒤에야 학문함에 기초가 있게 된다.

A learner must have a sincere heart toward the Way, and only after making sure that worldly trifles do not confuse his will, that he will have a foundation for his studies.

*誠心: 성실한 마음
*道: 길, 도리
*雜事: 잡된 일
*其: 그(대명사)
*然後: ~한 뒤에야
*有: 가지다, 있다
*向: 향하다
*世俗: 세속
*亂: 어지럽히다, 혼란하다
*志: 뜻, 의지
*爲學: 학문을(에 종사)하다
*基址: 터, 기초

해설

배움에는 무엇보다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본문의 "도리를 향한다"라는 말은 성인이 되는 길을 향한다는 뜻이다. '성실한 마음'이란 '참된 마음'과 같은 말로서,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온갖 잡된 일을 생각한다면, 배움의 기초가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 차원에서 보면, 앞에서도 나왔지만, 학습 동기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멀리 보면 배움의 목적이 순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배움의 동기가 자기의 세속적 욕망과 결탁하면, 배워서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多言多慮 最害心術
다 언 다 려 최 해 심 술

◁격몽요결▷

많은 말과 많은 생각이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데에 가장 해롭다.

Many words and many thoughts are most injurious to Art of the Mind.

*多: 많다 *言: 말
*慮: 생각, 염려 *最: 가장
*害: 해롭다
*心術: (도덕적) 마음씨,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해설

배움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태도이다.

여기서 '생각'은 이치를 탐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염려나 잡념 같은 것으로 배움에 방해되는 요인이다. 또 말이 많으면 가벼워 보이고 남이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밑천도 드러난다. 그래서 예부터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다언과 번민은 배움의 보편적 방해 요소로서 불교의 수행에서도 금한다. 원문 '심술'(心術)은 요즘 부정적으로 쓰이는 심술보와 같은 뜻이 아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기술이다.

교육 방법에서 보면 학습자의 주의집중이다. 잡담과 잡념을 없애고 오로지 학습에 몰두하는 일이다.

爲學者 一味向道 不可爲外物所勝
위 학 자 일 미 향 도 불 가 위 외 물 소 승
外物之不正者 當一切不留於心
외 물 지 부 정 자 당 일 절 불 류 어 심

◁격몽요결▷

학문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도를 향하여 외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바르지 않은 외물에는 일절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

Those who study should always turn toward the Way and not be distracted by external things. Anything that isn't right should no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t all.

*爲學: 학문을 하다
*一味: 한결같이, 곧장
*不可: ~하면 안 된다
*外物: 바깥 사물
*不正: 바르지 않음
*一切: 일절, 절대로
*於: ~에
*者: 사람, ~것
*向: 향하다
*爲~所~: ~에게 ~을 당하다
*勝: 이김, 이기다
*當: 마땅히 ~해야 한다
*留: 남겨두다, 머무르다
*心: 마음

해설

배우는 사람은 바깥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태도를 요구했다.

청소년들 가운데는 공부보다는 연예인, 운동선수, 이성 친구, 게임에 빠지거나 때로는 술 담배와 폭력 따위에 유혹되어 탈선하기도 한다.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훗날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배움에만 매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배움에 집중하는 태도가 좋다.

이 가르침을 역으로 따지면 학습 동기를 강화하거나 흥미를 유발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일이다.

當正身心表裏如一 處幽如顯 處獨如衆
당 정 신 심 표 리 여 일 처 유 여 현 처 독 여 중

◁격몽요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겉과 속이 같게 해야 하니, 깊숙한 곳에 있더라도 드러난 장소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혼자 있더라도 여럿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You have to get your body and mind right and make your appearance and your heart the same, so even if you are in a deep place, act as if you are in an open place, and even if you are alone, act as if you are in a group.

*當: 마땅히 ~해야 한다
*身心: 몸과 마음
*如一: 하나같이
*幽: 그윽하다, 깊다
*顯: 드러나다
*衆: 무리, 여럿
*正: 바르게 하다, 바로 잡다
*表裏: 겉과 속
*處: ~에 있다, ~에 처하다
*如: ~처럼, ~같이
*獨: 혼자

해설

겉과 속이 일치된 태도를 요구하였다.

'깊숙한 곳' 이하의 말은 『대학』에 나오는 신독(愼獨)을 좀 더 자세히 말한 것이다. 그 獨 자의 뜻을 주희는 '남은 모르지만 자기 혼자만 아는 곳'이라고 풀어, 쉽게 말해 자기의 외면은 물론 자기 내면까지 삼가고 경계하는 철저함을 말한다. 『중용』의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하는' 계신공구(戒愼恐懼)가 그런 뜻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내 마음을 다 안다고 하지만, 유학은 이렇게 자기가 자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고 경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교육적으로는 마음과 행동의 정직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常以行一不義 殺一不辜 而得天下
상 이 행 일 불 의 살 일 불 고 이 득 천 하
不爲底意思 存諸胸中
불 위 저 의 사 존 저 흉 중

◁격몽요결▷

한 가지라도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을 수 있더라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항상 가슴속에 두고 있어야 한다.

Even if it is possible to gain the world by doing even one unrighteous thing or by killing even one innocent person, you must always keep the intention in your heart that you will not do it.

*殺: 죽이다
*得: 얻다
*不爲: ~하지 않는다
*意思: 의사, 생각
*諸(저): ~에
*辜: 허물
*天下: 천하, 세상
*底: ~의
*存: 간직하다, 보존하다
*胸中: 가슴속

해설

배움에서 의롭지 못하거나 바르지 못한 불순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세상에는 의롭지 못한 생각과 행동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많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것이 행복하거나 보람 있는 삶은 아닐 것이다.

교육은 행위에 앞서 선한 동기를 가지며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성적 지상주의와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풍조에서는 약삭빠르거나 간교한 인물만 나올 것이다.

持敬 是窮理之本 未知者 非敬無以知
지 경 시 궁 리 지 본 미 지 자 비 경 무 이 지

◁성학집요▷

경을 간직함은 이치 탐구의 근본이요,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경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다.

Preservation of earnestness is the basis of exhaustive search for principle, and those who do not yet know have no way to know unless earnestness.

*持: 간직하다 *敬: 경
*是: ~이다 *窮理: 이치를 탐구하다
*本: 근본 *未: 아직 ~아니다
*知: 알다 *者: 사람
*非: 아니다 *無: 없다
*以: 방법, 도구, 수단 등을 나타내는 어조사

해설

경(敬)이 학문 탐구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경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옮기기 어려운 말이다. 마음을 잡도리하여 집중시키는 마음의 작용이다.

본문의 말은 주희의 말이다. 그 말에 앞서 선생은 "경이란 성인이 되는 학문의 처음과 끝이다"라고 하였는데, 학문하는 일의 중요한 마음 자세를 경이라 하였다. 배움의 과정에 필요한 태도이다.

교육상의 방법은 학습자가 잡념을 갖지 않고 배움에만 전념케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동기유발의 기법과 활동이 필요하다.

06

배움의 효과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effects of learning?

이 장은 배움의 효과를 소개한다. 최종적으로 성현이 되는 일이지만, 부수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효과가 있다.

人皆可以爲堯舜 豈欺我哉
인 개 가 이 위 요 순 기 기 아 재

◁격몽요결▷

(맹자께서) "사람은 모두 요순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 어찌 우리를 속이셨겠는가?

(Mencius said), "Everyone can become like Yao and Shun." How could he have deceived us?

*人: 사람
*皆: 모두, 다
*可以: ~할 수 있다
*爲: 되다
*堯舜: 요임금과 순임금
*豈: 어찌
*欺: 속이다
*我: 나
*哉: 의문문과 감탄문 뒤에 붙는 어조사

해설

잘 배운 결과 성인이 된다는 말이다.

본문의 "사람은 모두 요순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맹자의 말이고, "어찌 우리를 속이셨겠는가?"는 옛날 자주 썼던 말투로, 여기서는 선생의 말이다.

흔히 유학자들은 공자를 배워서 성인이 된 분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유학은 기독교와 달리 보통 사람도 열심히 배우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맹자』에 보면 공자의 제자 안회가 "순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순처럼 행동하면 순처럼 된다"라고 한 말도 소개하고 있다.

교육 이론에서 보면 배움의 가능성 긍정 또는 배워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進則爲聖爲賢 退則爲愚爲不肖
진 즉 위 성 위 현 퇴 즉 위 우 위 불 초

◁성학집요▷

나아가면 성인도 되고 현인도 되지만, 뒤로 물러나면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못난 자가 된다.

If you move forward, you become a saint or a sage, but if you step back, you become a stupid or foolish person.

*進: 앞으로 나아가다

*則: 조건절과 주절을 잇는 접속사, ~하면 ~하다

*爲: 되다

*聖: 성인

*賢: 현인

*退: 뒤로 물러나다

*愚: 어리석은 사람

*不肖: 못난 사람, 원래는 어버이를 닮지 않은 사람

해설

꾸준히 배운 결과 성인이나 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동양적 사유는 서양 종교처럼 신의 은총이 아니라 공부해서 성인이 되거나 자신을 구원하는 방식을 취한다. 유학은 물론이요, 불교나 도가철학도 그렇다.

그러니 배움 곧 공부는 그만큼 중요하다. 유학을 단순히 윤리 · 도덕과 예법 그리고 통치 수단만을 강조하는 학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궁극의 목표는 이런 배움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는 데에 있다.

중단없는 학습과 노력의 결과 인격이 변화하는 것이다.

聖人之德 與天爲一 神妙不測
성 인 지 덕 여 천 위 일 신 묘 불 측

◁성학집요▷

성인의 덕은 하늘과 하나가 된 것이니 그 신묘함을 헤아릴 수 없다.

A sage's virtue is like the Heaven, and its spiritual power is unfathomable.

*聖人: 성인
*之: ~의
*德: 덕
*與: ~와, ~함께
*天: 하늘
*爲: 이다
*一: 하나, 같다
*神妙: 신기하고 묘함
*不測: 헤아릴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해설

배움의 목표인 성인의 덕을 묘사하였다.

잘 배운 효과는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덕 또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자연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신묘한 작용처럼!

이처럼 덕이 있는 사람은 떠들지도 내세우지도 않는다. 『노자』에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기에 보통 사람은 성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덕이 있는지 알아볼 수 없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법이니, 자기의 덕이 높아야 성인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 겸손하게 누구에게든 배우려고 해야 한다.

聖人無私 故德合乎天地焉
성 인 무 사 고 덕 합 호 천 지 언
君子去私 故行合乎聖人焉
군 자 거 사 고 행 합 호 성 인 언

◁성학집요▷

성인은 사사로움이 없으므로 덕이 천지와 부합한다. 군자는 사사로움을 없애므로 행실이 성인의 그것에 부합한다.

Since the sage is not selfish, his virtue is harmony with Heaven and Earth. Since the Superior Man gets rid of selfishness, his conduct conforms to that of a saint.

*無: 없다
*故: 그러므로
*合: 합하다, 하나가 되다
*焉: 어조사
*去: 제거하다, 없애다
*私; 사사로움
*德: 덕
*乎: ~에
*君子: 덕행이 높은 사람
*行: 행동, 행실

해설

배워서 성인과 군자가 되었을 때의 경지를 말했다.

성인의 덕이 하늘 땅과 같다는 말은 자연이 말없이 만물을 낳고 길러주듯 성인은 사적인 욕심이 없어 말없이 그렇게 한다는 뜻이다. 군자는 열심히 노력하여 사적인 욕심을 버려서 그 행동이 성인의 그것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거꾸로 말해 사람이 잘 배워서 자연이 하는 일처럼 그 덕을 향상하면, 성인이나 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배운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되기는커녕 되레 남을 해치면서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 많이 배웠다고 또는 학력이 높다고 반드시 잘 배웠다고 말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治私之術 惟學而已 學進則量進
치 사 지 술 유 학 이 이 학 진 즉 량 진

◁성학집요▷

사사로움을 다스리는 방법은 오직 배움뿐이다. 배움이 진보하면 도량도 진보한다.

The only way to correct one's selfishness is through learning. As learning progresses, virtue also progresses.

*治: 다스리다, 바로잡다
*私: 사사로움
*之: ~의
*術: 방법, 꾀
*惟: 오직
*而已: ~일 뿐이다
*進: 나아가다, 진보하다
*則: ~하면 ~하다의 접속사
*量: 양, 여기서는 문맥상 德量을 말함

해설

배움의 효과를 말하였다.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는 방법도 배움이요, 덕량을 넓히는 일도 그 진보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원문 사(私)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 말이다. '사적인' '개인적인' 의미는 현대사회에서 존중받는다. 하지만 선생이 말한 시대의 배경에서 보면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과 관련됨을 말한다. 특히 임금과 같은 리더의 사사로움을 경계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적인 일이 존중받지만, 리더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用功之至 必有效驗 以盡知行兼備
용 공 지 지 필 유 효 험 이 진 지 행 겸 비
表裏如一 入乎聖域之狀
표 리 여 일 입 호 성 역 지 상

◁성학집요▷

힘쓰는 노력이 지극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앎과 실천을 아울러 갖추어 힘을 다하면, 겉과 속이 하나같아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If you put in a lot of effort, it will definitely work. So if you equip yourself with both knowledge and practice, and do your best, you will enter the state of a saint, as your heart and attitude are one.

*用功: 힘쓰다, 노력하다
*必有: 반드시 ~이 있다
*以: ~함으로써, ~으로써
*知行: 앎과 행동(실천)
*表裏: 속마음과 겉모습
*入: 들어가다
*聖域: 성인의 경지
*至: 지극하다
*效驗: 효험, 효과
*盡: 다하다
*兼備: 함께 갖추다
*如一: 하나같다
*乎: ~에
*狀: 모습, 상태

해설

열심히 배운 효과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 효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일이다. 그런데 그 공부의 방법은 앎과 실천을 아울러야 한다는데, 이것이 단순한 지식 공부와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점이다.

『논어』에서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고 힘이 남아돌면 글공부하라는 정신과 통한다. 전통적 배움이 실천하는 행동과 동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 결과 겉과 속, 곧 머릿속에서 아는 내용과 행동하는 태도가 일치한다. 지식을 쌓는 일 못지않게 배움을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다. 앎과 실천은 배움의 두 날개이다.

當行之道 曉然在前 可以進步
당 행 지 도 효 연 재 전 가 이 진 보

◁격몽요결▷

마땅히 가야 할 길이 환하게 앞에 있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The Way we should go is brightly in front of us, so we can move forward.

*當: 마땅히 ~해야 한다
*道: 길, 도리
*在前: 앞에 있다
*進: 앞으로 나아가다
*行: 가다, 실천하다
*曉然: 환하게
*可以: ~할 수 있다
*步: 걸음, 걷다

해설

「독서장」에서 말하는 배움의 방법으로서 독서의 효과이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란 인간으로서 실천해야 할 도리를 말한다. 성인의 가르침이 실린 책을 읽으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사실 독서의 효과는 많다. 그 가운데 하나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그 물음에도 종류가 많은데, 인생의 화두처럼 근본적 물음일수록 깊은 답을 얻는다. 물론 잘 묻는 사람만이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다. 물음 속에 이미 절반 이상의 답을 갖추고 있으니까.

고전 속의 위인이나 성인들은 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사람이 묻지 않을 뿐이다.

君子 憂道 不當憂貧
군 자 우 도 부 당 우 빈

◁격몽요결▷

군자는 도리를 걱정해야지 가난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

A Superior Man should worry about the Way, not worry about poverty.

*君子: 군자 *憂: 근심하다, 걱정하다
*道: 길, 도리 *貧: 가난(하다)
*不當: 마땅하지 않다, ~하면 안 된다

해설

군자의 품격으로서 배움의 효과를 말하였다.

군자라는 말에는 여러 뜻이 있다. 여기서는 학식과 덕을 이룬 사람을 뜻한다. 『논어』에 자주 등장하며 소인과 대비되는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배움을 어느 정도 완성한 사람을 가리킨다.

선생의 이 말은 진정한 군자라면 세상을 근심해도 개인의 가난 따위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선비의 '우환(憂患) 의식'이라 한다. 곧 공동체가 잘못되지 않는지, 백성이 잘사는지, 세상이 정의로운지 걱정하는 일이다.

이 말은 군자가 꼭 가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하더라도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구차한 짓 따위는 하지 말라는 말과 통한다. 하물며 가난이 아닌 사익(私益)이랴.

부록

배움의 철학적 근거와 배경

학과 학문

보통 배움을 한 글자로 표기할 때는 학(學), 두 글자로 표기할 때는 학문(學問)이라고 말한다. 이 배움의 의미만 알아도 이이(李珥: 이하 선생으로 약칭) 선생의 교육 사상을 대충 이해할 수 있다.

학문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서양식 용어에 길든 탓에 보통 일정한 체계를 갖춘 이론 지식을 일컫지만, 전통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아무튼 학문이라는 명칭 그 자체는 『논어』의 "널리 배우고 절실하게 묻다"라는 박학절문(博學切問)에서, 또는 『중용』의 "널리 배우고 살펴 묻다"라는 박학심문(博學審問)에서 한 글자씩 따왔다. 그리고 『맹자』와 『순자』에도 직접 '학문'(學問)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사실 배움이란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살면서 있었겠지만, 선생이 말한 배움은 대체로 공자의 배움에서 시작한다. 『논어』 첫 장의 주제부터 배움으로 시작한다. 거기에 있는 주석에 따르면 "학이란 본받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배움이란 "선각자의 행위를 본받는 일"이라고 하는데, 유학에서 말하는 선각자란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서 대체로 성인이나 현인이나 군자가 거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의미에는 오늘날 지식 습득과 다른 무엇, 선생의 배움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법 및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논어』에 등장하는 학을 종합하면 오늘날 학교에서 다루는 지식체계를 습득하거나 그 기능을 익히는 일과 구별되는 무엇이다. 곧 성인의 가르침을 모은 행위나 도덕 가치의 체계만을 일컫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본받는 일이 배움이다. 다분히 이론만이 아니라 그것과 실천이 함께 배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논어』 주석의 '본받다'란 그런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선생이 『격몽요결』에서 "학문이란 이상하고 별다른 무엇이 아니다. 어버이가 되어서는 마땅히 자녀를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어버이에게 효도하

며… 이것은 모두 날마다 생활하고 활동하는 사이에 일을 따라 각기 마땅함을 얻을 따름이지 마음이 심오한 데 달려가 신기한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하였다. 학문이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나 앎의 대상만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일상생활의 실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배움의 목적과 목표

현대 교육에서 교육의 목적을 국가의 관점에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하고,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아를 실현하여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선생은 그것을 『격몽요결』「서문」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하였다. 이는 배움의 목적이 인간이 되는 데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의아해하겠다. 이미 사람이 되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선생이 따랐던 철학의 인간관을 이해해야 한다.

성리학은 맹자의 전통을 따라 사람은 선한 본성을

타고났지만, 기질과 욕심에 가로막혀 그 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사람 가운데 나쁜 사람은 인간이 못되고 금수와 같은 행실을 하게 된다. 지금도 온갖 탐욕으로 사회에 불의와 문제를 일으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회의 부조리를 설명하는 것이 현실적 인간성 담론이다. 그런 인간성을 성리학의 용어로 기질지성(氣質之性)이라 부른다.

바로 여기서 이 기질지성을 극복해야 하는 당위성이 나온다. 그것을 극복하고 본래의 착한 본성인 본연지성(本然之性)을 회복한 사람이 참사람이며, 그 방법이 학문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선생이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할 때의 사람은 본래의 본성을 회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유학에서 성인이란 기질지성을 극복하고 본연지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다. 선생이 『격몽요결』에서 "처음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뜻을 세우되 반드시 성인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핑계 대려는 생각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말이 바로 성인이 배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흔히 성인이라고 하면 인류를 위해 큰일을 하거나 인류의 큰 스승 정도로 알아, 선생의 이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오해할 수 있겠으나, 그 철학의 배경을 이해하여 누구나 착한 본성대로 살면 그가 바로 성인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누구나 수행을 통해 깨달은 부처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어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불교처럼 내가 노력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성인관은 이미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를 모델로 하고 있다. 흔히 공자를 '배워서 성인이 된 분'이라 일컫는다. 그 근거는 공자가 하학상달(下學上達), 곧 자질구레한 일부터 하나씩 배워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에 있다.

이는 송대의 신유학이 나오면서 사대부들이 스스로 배워서 성인이 되려고 했던 일과 무관하지 않다. 곧 개인의 노력이나 학문의 자각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본 데서 나왔다.

문제는 누구나 그 착한 본성을 쉽게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구체적인 배움의 내용과 방법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렇게 성인이 된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는 배움의 최종 목표에 해당하겠다. 그냥 성인이 된 뒤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될 일인가?

그렇지 않다. 바로 여기서 유학의 또 하나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논어』에 보인다. 그것은 "자기 몸을 닦아 남을 다스린다"라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다. 『대학』의 논리로 보면 '몸을 닦아 가정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자기 몸을 닦아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 사상은 선생의 『성학집요』에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 유학자 선비는 결코 사회의 부조리나 잘못에 대해 가만히 팔짱 끼고 눈 감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배움의 내용

공자가 살았던 당시까지만 해도 기초적 배움의 내용은 육예(六藝)라 일컫는 예법 · 음악 · 활쏘기 · 수레몰기 · 글씨쓰기 · 셈하기와 여러 덕행이 있었다.

하지만 후대의 유학은 공자의 가르침에서 그 내용을 삼았다. 그 내용은 효(孝) · 제(弟) · 충(忠) · 신(信)과 인(仁) 등을 고려해 볼 때 인간으로서 가치를 실천하는 일 그 자체이다. 좀 더 분석한 정자(程子)의 표현을 빌리면 "공자는 네 가지 가르침으로 가르쳤으니 문(文) · 행(行) · 충(忠) · 신(信)이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하

지 않은 문(文)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앞서 말한 예악(禮樂)을 포함한 육예(六藝)와 시서(詩書) 등이 그것으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가 송대 신유학이 태동하면서 배움의 내용은 일상생활의 실천적 내용 위에 좀 더 철학적인 개념으로 보강된다.

선생의 배움의 내용은 『격몽요결』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인간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오륜(五倫)으로서 어버이를 섬기고 형을 공경하며, 임금에게 충성하고 웃어른에게 순종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하게 하는 도리를 지키는 일이 그것이다. 또 범위로 보편 개인에서 부부 자식의 가정의 도리와 친구와 스승과 마을 사람 등의 사회로 확장하는 도리이다.

특히 그 「독서장」에는 책의 내용에 따라 배워야 할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 『소학』에서는 생활의 기본적인 도리를 익혀 행하고, 『대학』에서는 궁리(窮理)·정심(正心)·수기(修己)·치인(治人)하는 도리를 알아 실천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논어』에서는 인(仁)을 찾고 자신의 덕행을 높이는 학문을 하며, 근본을 함양하고 체득하는 일이며, 『맹자』에서는 의(義)와 이(利)를 밝게 분별하고

인욕(人慾)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하는 말을 밝혀 확충하는 일이고, 『중용』에서는 성정(性情)의 덕과 미루어 지극히 하는 공부와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생육하는 미묘한 이치 등이다.

또 『시경』에서는 성정의 간사하고 바름과 선악을 살펴 선한 마음을 감발하고 악한 마음을 징계하는 일이며, 『예기』에 대해서는 천리(天理)의 절문(節文)과 의식(儀式)의 도수(度數)를 강구하는 일이 그 내용이다. 『역경』에서는 길흉(吉凶)과 존망(存亡), 진퇴(進退)와 소장(消長)의 기미를 관찰하여 연구하는 일이 그것이며, 『춘추』에서는 성인이 선을 기리고 악을 벌주며 억누르고 고양하며 조종한 은미한 말과 오묘한 뜻이 그 내용이다.

그 밖에 송나라 선비들이 지은 『근사록』(近思錄), 『가례』(家禮), 『심경』(心經), 『이정전서』(二程全書),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및 기타 성리설(性理說)의 내용을 공부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 선생의 배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생활 덕목에서부터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치까지 아우르는 참된 인간이 되는 인문학 위주로 되어 있어, 천문 · 지리 · 산학 · 의학 · 기술 같은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 그것을 잡학으로 여겨 사대부 선비가 공부하지 않은 탓이기도 하다. 비록 선생이 현실의 개혁을 주장하여 그 학문이 실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도 그렇다.

배움의 방법

배움의 방법이란 교육학에서 볼 때 교육 방법으로서 다양한데, 좁혀서 말하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곧 어떤 식으로 배우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수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선생의 교육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공자의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야 유학에서 말하는 일반적 교육 방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논어』에 돋보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지식을 밝혀 습득하거나 개념을 분명하게 하는 이론 공부가 아니라 사회의 행동 규범을 몸소 실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가령 "군자는 근본에 힘쓸지니 근본이 서야 도리가 생겨나니 효도와 우애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 아니겠는가(「학이」)?"라거나 또 "제자들은 집에 들어와서는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윗사람에게 공경하되 삼가고 미덥게 하고 널리 무리를 아껴주며 어진 이를 가까이할지

니, 그렇게 실천하고도 힘이 남아 있으면 문물을 배워야 한다"(「학이」)라는 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생활 규범의 실천을 통해 배우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문물을 익히는 일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인용문의 "힘이 남아 있으면 문물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어디까지나 실천궁행이 먼저라는 뜻이다.

선생이 말한 배움의 내용도 학문이란 고상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규범의 실천하는 일에 있음을 말할 때부터 알 수 있듯이 생활 규범을 실천하는 일 그 자체가 배움의 방법이었다.

다음으로 배움이란 『논어』「학이」편의 첫 장의 주석에서 '선각자를 본받는 일'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방법이 '본받는 일'이 그것이다.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가르치는 스승을 본받는 일도 되지만, 옛 성인의 행적을 본받는 일이기도 하다.

스승을 본받는 일은 거꾸로 말하면 스승이 모범을 보이는 일이다. 동아시아 전통 교육에서 스승이 본을 보이지 못하면 교육은 성립될 수 없다. 학생들에게 권위가 서지 않아 본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권은 중요하다. 교권은 법률상의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스스

로 세우는 권위이다.

그래서 공자는 스스로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맹자』)라고 하였고, 또 『논어』에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민첩하게 찾는 사람이다”(「술이」)라고 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런 성인을 본받는 일이 배움의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성인을 만나볼 수 없으므로, 성인의 자취와 가르침이 남아 있는 책을 읽음으로써 성인을 본받을 수 있다. 선생이 『격몽요결』에서 「독서장」을 따로 두면서까지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공자의 교육 방법에는 학생의 자발성을 매우 중시하였다. 『논어』에 보면 공자는 “학생이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 생각을 계발해 주지 않고, 표현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잘 되게 튕겨주지 않는다. 학생에게 한 모퉁이를 들어 보이면, 나머지 세 모퉁이를 들어 호응하지 않으면 더는 계속해 가르치지 않는다”(술이)라고 하였다.

사실 공부는 학습자의 자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리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효과 면에서도 그렇다. 말에게 물을 먹이러 냇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말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현대의 제도 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강제로 주입하기 때문이다.

선생의 교육 방법에서 이 자발성 중시는 학생의 뜻을 세움과 태도와 연동되어 있다. 곧 입지(立志)는 배움의 목표이자 그 방향으로서 학생의 자발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헛구호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부 태도로서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와 역행(力行)도 자발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현대인들 가운데 성인이 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곧 왜 성인이 되어야 하는지 자발적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굳이 성인이라 말하지 않고 '도덕적이며 바람직한 인간 되기'로 바꾸어도 그렇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학생의 내적인 동기유발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학생들은 각종 감각적 활동과 오락에는 하지 말라고 말려도 뛰어든다. 현대 문화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 도도한 흐름을 무슨 수로 바꿀 것인가?

배움의 효과

배움의 효과를 한마디로 '공자는 배워서 성인이 된

분'이라는 말이 있다. 『예기』에 보면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룰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로움을 모른다"(「학기」)라는 말이 있고, 『순자』에는 "나무는 먹줄로 긋는 직선에 맞게 잘라야 반듯하게 되고, 쇠붙이는 숫돌에 갈아야 날카롭게 된다"(「근학」)라고 하였는데 모두 배움의 효과를 일컬은 말이다.

선생은 『격몽요결』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여 배움의 효과를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배움이란 일차적으로 사람답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그 '사람다움'이 쉽지 않다. 우리 말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점을 잘 말해준다. 선생 학문의 방향에서 보면 그 사람다움이 타고난 선한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이겠지만, 현대인들이 본성이 선하다는 그 전제를 믿을지 모르겠다. 전제가 무너지면 그 이후의 이론 전개 과정도 헛수고가 된다.

하지만 그 전제가 어떻든 학문의 형식적 정의(定義)와 방법에 착안하여 본다면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 우선 "배워야 사람이 된다"라는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 배움의 내용이 단순 지식이나 기능만이 아니라, 도덕성

계발도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하자.

다음으로 배운 사람의 모습이다. 전통식으로 말하면 선비의 사회적 역할이다. 선비는 사회에서 역할이 있든 없든 공동체의 미래에 우환 의식을 갖고, 실천에 노력한다. 뒷짐 쥐고 젊잖게 있는 사람을 선비로 잘못 알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선비가 아니라 위선자인 향원(鄕愿)에 가깝다. 다만 주제넘게 또는 때와 상황에 맞지 않게 가벼이 나서지 않을 뿐이다. 성인 또한 인품만 고결한 것이 아니라 일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다.

끝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하나만 덧붙인다면, 배움은 지식과 기능을 익혀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기와 인류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 만물까지도 잘 길러지게 하는 데 이른다.

흔히 유교가 종교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서양식 종교 개념에서 보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사실 불교의 본질도 그 개념에서 보면 종교가 아니다. 사람들은 마치 초월적 신이 있어야 종교가 성립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구원을 말한다.

우리 전통에서는 아예 서구식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것에 상응하는 용어는 그냥 교(敎) 곧 성인의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 속에 인류의 행복과 구원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굳이 서양 종교와 우리 불교나 유교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전자는 타력(他力) 신앙에 의한 구원이고 후자는 자력(自力)에 의한 구원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유교의 구원이란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구세주를 믿음으로써 용서받아 낙원에 이르는 일이 아니라, 무지와 그에 따른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해방되어 개인 · 가정 · 사회 · 국가·인류의 복지가 실현되고, 만물이 함께 번성하는 세상이 되는 일이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배움이고, 구원 그 자체는 배움의 효과이다.

이 방법은 매우 이성적이기에 사람의 눈길을 끌 만한 이익이나 매력이 없어 보인다. 현재로서는 배우는 사람이 그 실천 동기를 자각하는 일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편역자 후기

율곡 이이 선생의 입지(立志) 사상과 함께 배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물론 이것은 공자 이래로 유학에서 배움을 중시한 전통에 근거한다.

선생의 배움 또한 현대인들의 사고 습관에 맞게 범주별로 나열하여 논한 것이 아니기에, 편역자가 관련된 글을 모아 교육 이론의 범주에 맞춰 편집하고 우리말로 옮겼다. 주로 『격몽요결』이나 『학교모범』 같은 교육 관련 텍스트 내용 위주로 엮었다.

그리고 그 확장성을 위하여 본문을 영문으로 옮기고, 일반인과 학부모 및 교사들을 위한 간단한 해설을 붙이며, 한자 뜻풀이도 수록하였다.

그것을 좀 더 조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부록〕에서 철학적 근거와 배경을 다루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중요한 용어와 인명의 영문 표기는 주로 펑유란(Fung Yu-Lan)의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1953, Princeton University)와 『근사록』(近思

錄)을 영역한 *Reflections on Things at Hand* (1967, Columbia University)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 「한국학 영문 용어 용례사전」의 그것을 따랐다. 이 자료들도 본서처럼 영문으로 정확하게 옮길 수 없는 용어에 대해서는 학파와 문맥에 따라 같은 한자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자를 가까이 두고 자주 읽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체득하여 각자의 인생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시대의 배경은 다르지만, 배움을 통해 인간이 완성되는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서를 기획하고, 초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조언을 마다하지 않으신 최영진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23. 9.

이 종 란

편역자 소개

이종란(李鍾蘭)

철학박사. (전) 교사, 성균관대 강사, (현) 연구와 번역, 저술 활동에 전념.

주요 저서로는『율곡의 마음공부』,『미래를 향한 율곡의 가정교육』,『서양 문명의 도전과 기의 철학』,『민의 철학과 민족종교』(공저),『주역, 삶에 미학을 입히다』(공저),『기란 무엇인가』,『의산문답』,『최한기의 운화와 윤리』,『전래동화 · 민담의 철학적 이해』,『청소년을 위한 이야기 논어』,『전래동화 속의 철학 1~5』 등과『이이가 들려주는 이통기국 이야기』,『주희가 들려주는 성리학 이야기』 외 다수의 철학 동화가 있고, 번역서로는『운화측험』,『왕양명실기』,『공제격치』,『주희의 철학』(공역),『왕부지 대학 · 중용을 논하다』(공역),『동호문답』,『율곡의 상소문』,『만언봉사』,『뜻을 세워라』 등이 있으며, 그 외 여러 논문이 있다.